朝鮮日報

今日四面

新聞價 壹部(朝夕刊)金五錢 朝刊貳錢 夕刊參錢 壹個月先金壹圓參拾錢 …個月先金貳圓九拾錢 六個月先金五圓七拾五錢(郵稅本社負擔)
廣告料 五號活字壹行壹圓卅錢 …號九字壹行貳圓 特別揭載指定料五號每壹行參拾錢
編輯兼發行人 金東成 印刷人 崔益進 發行所 朝鮮日報社

…錫鎬氏가卒業年限까지學費를…하야農學케하얏다고(長湍)

…民救濟 金海郡大…小鹿里水害罹災民을救護코저左…

朴敬琪氏 慶南東萊朴敬…

姜錫鎬氏 慶北安東郡北後面私立龍田學術講習所를設立

金泰謙氏 平北博川郡川面南湖洞金泰謙氏는水災當時

…內面備南少年會에서勞働力作…實行코저同面緞龍里同門契所有

李洛永氏 江原道原州郡原州面上明里司法代書人李洛永

蔡勳默氏美事 敎育機關의萬設과

…敎育機關이無함을恒常…생각하고今年春부터…包式分給하고播種期에金百圓으

水害寄附金處分

社說

科學研究의自由 —科學研究會解散을보고—

一

『에덴』동산의『아담』과『이화』는 知慧의果實을먹엇다 그들은 하나님의命令을違反하고 배암의꾀임에빠젓다 이배암은 好奇心의象徵으로볼수잇다 그들은 樂園을일허지마는 科學研究의自由를 어덧다 만일사람이 現狀에滿足하고만잇다하면거긔에는 變化가업고 따러서活動이업서질것이다 『아담』과『이화』가 하나님의命令을違反하고 知慧의果實을먹어 善惡을判斷하게된것은 確實히一進步라고볼수잇는것이다 이것이 人類反抗의最初이다『아담』과『이화』는사람의先祖이다

二

人類의最初行動은 反逆에서始作되엿다 오날날人類의生活이 이와가티되여온것은 幸福인지 안인지는勿論하고라도何如間 人類가不絶히反逆하여온成果이다 만일人類全部가 現狀에滿足하고 그當時支配者의命令에만 悅服하고잇섯드라면 人類의歷史는 當初부터始作도되지아니하고잇섯슬것이다 우리는 이地上에생기지도 아니하엿슬것이고 다만樂園의한편에서단장을職하고잇섯슬뿐이엿슬것이다 그러나 人類에게는 好奇心이라 反抗的天性이잇다 好奇心이라는것이잇고 그에依하야恒常思考의慾이衝動되는것이다 그럼으로未知의領域에 突進하고 禁斷의內幕을벗겨보기를 애쓰고잇는것이다 科學은 現在에對하야不滿을가지게되고 反省함으로因하야 發生한 것이다 人類는只今所謂文明時代에到達하여왓다 勿論文明自體가 참으로人類의幸福을增進하는것인가 아닌것인가? 하는問題는 姑舍하고라도 何如間오는날의 人類가現代文明을 버릴수업는 것은 事實이다 즉人類가 現今의文明을떠나서 生活할수업는것은事實이다 그러한데 現代文明은科學의所產이다

三

文明의進步는 科學의發達에잇고 科學의發達은 그研究의自由를 前提로한다 그럼으로文明을進步식히려면 科學研究의自由를容認하지아니할수업다 그러나 오는날科學研究의自由라함은 自然科學의範圍內에잇서서는 充分히認定되엿다고할수잇스나 社會科學의範圍內에잇서서는 아즉도制限이만타고 하리하야 國家에關한研究라던지 社會에關한研究에對하야는 一定한制限이잇서서 그것을超越하지못하게되엿다 現在社會制度를 維持하려고만努力하는階級에서는 그에對한侵害를 불과칼로써 防禦하려고한다 그럼으로 社會科學의研究는 오는날에잇서서도 퍽不自由한處地에잇다고할수잇다

四

今番에 學生科學研究會가 突然히解散된것은 그들이支配階級의權力을 自己들의基礎를擁護하기爲하야 使用한가장明白한一例이다 그리고『學生의身分으로學校當局과 取締當局이認定치안는會合은 絶對로承認할수업고』장차思想이不穩한社會團體와聯絡이되여 어떠한政治的災殃이미칠』念慮가잇슴으로 그를解散케하엿다함이 當局의말이다 즉 그것을解散한口實이다 그러나 科學研究會는 一般的으로『科學研究 科學思想의普及을期한다』하고 第二次로『朝鮮學生의思想統一과 互相團結을圖한다』하는것을 明言하고 第三次로『人間本位의敎育을 實現하기를期하며 朝鮮學生의 當面한問題의 解決을期한다』는것을表示하엿다 이러한主旨下의 科學研究會는 社會科學을研究하며 또그思想을 傳播하기를目的으로한다고 斷定할일것이다 이事實로因하야 우리는現下의朝鮮에잇서서 社會科學研究의自由가 항상彼等頑固한者流에게沮害됨을確認하는同時에 이方面에努力하고저하는 人士의鬪志와用意가 如何히堅固緻密하여야할가를 깁게생각하게된다 또社會科學의研究를 妨害하는者는또한 社會의發達成長을 沮害한다고볼수잇다

吳氏의勞農政策化
勞農武官招聘交涉成立
◇奉天派牽制의目的

(奉天三十一日發) 吳佩孚의勞農化政策이漸次濃厚하게되여義者沿海州로부터約百名의勞農武官招聘交涉이成立되엿는故로海蔘威를經하야近近上海에到着하게되엿는데吳佩孚는五省聯盟으로써奉天派를牽制하는同時에北京에잇는舊直隷派의人物과策應하야政變만잇스면露西亞와協調하야國內를統一할野心이잇다더라

張宗昌軍七萬餘
浙江軍과對峙하야잇다

(濟南三十一日發) 浙江軍에對한張宗昌氏軍은七萬餘이며近近奉天으로부터飛行機十臺가到着할터이라더라

廿八旅徐州出動

(濟南三十一日發) 濟南에는아직二十八旅團인데近近二千名은殘留하고其他全部는徐州方面으로出動케하리라한다그런데居留民保護에는支障이無하기를期한다더라

直隷省에戒嚴令公布

(天津三十一日發) 李景林은十一月一日로부터直隷省에戒嚴令을布하는旨를公布하엿더라

國民黨의討張應援
『張作霖은賣國害民』
孫氏事業은此에依하야阻碍

(上海二十九日發) 國民黨은去二十四日附次와如한宣言을發表하얏더라 孫文氏의國家的事業은張作霖、段祺瑞氏에게依하야 阻碍되얏다 張作霖氏는國을賣하며民을害하고段祺瑞氏는張作霖氏를依賴하야超立하얏다、今에長江一帶에張作霖氏討伐軍이르킴의應援에努力함과共히國民革命의旗幟下에中國民衆의利益을擁護키爲하야奮鬪하기를期함

各國代表言明內容
關稅會議第一委員會에서

(北京三十日發) 本日의關稅會議第一委員會에서亞米利加代表『스트론』氏의演說은如左하다 中國關稅自主權의樹立은釐金稅廢止와相依하야行치아니하면안되겟다 하얏고次에 丁抹代表『카우푸맨』氏가登壇하야右와거의同樣의演說을하엿다尙且其他

定에隨하야今回召集된것인데其目的은一、九二二年二月六日에締結된條約의 規定에依하야 中國利益을 中心問題로 討議決定하는權限을有함으로予는寬大한精神으로써關稅自主案을審議하고其提案의合理的인限에中國國民의希望에奉副한決心이라고和蘭『오렌데이크』氏는關稅自主權은國家의自主權에屬하야自主權과不離의關係가잇슴으로我政府는中國政府가今回의會議에提出又는將來에提出하라고하는諸問題의圓滿解決을期하기爲하야最善을盡할權限을予에게囑하엿다고伊太利『서르진』氏는釐金稅廢止와關稅自主權回復과는相換的問題임으로關稅自主權을完全히獲得함에는釐金稅를廢止함이至當하다고信한다고葡萄牙『비안나』氏、瑞威『미서렛드』氏、西班牙『가리으든』氏는伊國代表와大同의意見을陳하엿고瑞典『에바로프』氏는中國提案의關稅自主權回復은贊成하나此問題에對한我國의態度는方今에는何等本國政府로부터訓令을接치못하야言明할수업다하얏는데英國『메크마레』氏는瑞典과同樣의處地이라고陳述하야其態度를言明치아니하얏더라

各省의稅金總額
財政整理會發表

(北京二十九日發) 財政整理會發表에依하면各省의稅金總額은左와如하더라 ▲釐金稅六八、六一八、六四八元▲海關稅一四、一三九、二六九元▲鹽稅八一、四三三、三五四元▲煙酒稅一五、八三七、八三五▲元印花稅三、〇四七、六一八▲元郵稅收入一三、二五七、一四元▲鐵道收入一一八、二八八、九二四元

瑞典公使의請訓

(北京三十一日發) 瑞典公使는英國과가티自主權問題에就하야本國에請訓하엿는데此는私見으로는列國과大差가無하다한機能關係로請訓함에不過하다한다그런

孫洪伊의大氣焰
『關稅會는國賊의하는일』
此에는何等感想도업다

(北京三十日發) 先取合法을主張하야黎元洪을中心으로何等運動에沒頭한다하는中이라는說이잇는孫洪伊를訪問하고關稅會議에對한所感을問한즉氏는易債하야말하되現在國賊等이行하는일에對하야何等의感想이잇슬理가업다要컨대彼等의云謂하는바成功을實來한다드래도吾人은此를承認치못할지오吾人의天下가되면無效를宣言하고更히會議를開할것이라云云

佛軍損害六千
시리아騷擾以來
◇佛軍遂히總退却

(나우엔三十日發) 『시리아』의沙漠에서『다마스카스』市로부터『카이로』에着한避難者等은同市를不死人의都라稱하며其實情을말하되佛軍의步兵『탕크』、爆擊飛行機에依하야破壞된多數의建物에치여尙且多數의死體가橫臥하엿더라

『재』將軍召還 (巴里三十日發) 佛蘭西政府는 現在『시리아』委任統治 地域統監인『사라이호요』將軍을召還하기로決하엿더라

攻擊하엿는데『시리아』의『버도우인』族住民의一部에依하야包圍되야佛軍은大損害를受하야遂히退却하엿는데『시리아』騷動以來로佛軍의蒙한損害는六千名이라고云하더라

로카르노政策繼續
獨政府對各國通告

(나우엔三十日發) 獨逸政府는英、佛、白、伊의各政府에對하야各其駐剳獨逸大使를通하야『로카르노』의政策은國權黨의反對에不關하고繼續할旨를通告하엿더라

하겟다『메란』將軍은佛軍砲騎兵各一個聯隊를率하고『돔스』軍을一決하엿더라

波斯革命의成功

(데헤란三十一日發) 報道에依하면波斯現首相『리자·칸』氏는遂히現在의『카자르』王朝의『사ー』王以下를追放함에成功하얏는대革命議會는憲法에依하야正當政府가組織되기까지『리자·칸』氏에게一時完全한最高權을賦與하기로하얏더라

國際銀行會議
紐育에서開催說

(伯林三十一日發) 獨逸西岸製鐵產業化機關新聞所報에依하면紐育에서國際銀行會議를開催하고全世界를網羅할財政的保障條約을作成하라는議가잇스니即此에依하야紐育『포ー루』街로하야금世界의國庫財政을統轄케하라는計劃이잇다하얏고尙且同紙는明春을期하야國際通貨會議開催의計劃이잇다고報하는中인바該會議는此에依하야世界的으로가장重要한通貨의暴落을防止할國際準備紙幣를作製하라는것이라더라

米官憲은否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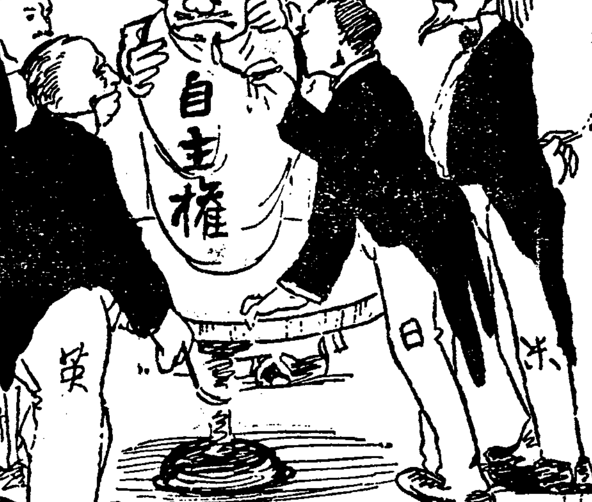
(紐育二十一日發) 米國官憲은國際銀行會議를召集한다는說은事實無根이라고此를否認하는中이더라

失業豫防
都市轉居阻止
地方長官에通牒

(東京電) 內務省은六大都市失業救濟事業을압혀두고政府는豫防策을講하야都會는失業의海임으로地方에서의轉居沮止를二十日地方長官에게通牒하얏더라

出超二千餘萬
日本下旬貿易

(東京電) 大藏省發表、十月下旬十三港貿易은輸出七千四百十四萬五千圓輸入五千三百十一



鐵筆寫眞 投稿歡迎
이이른바사랑발림!

希勃講和
聯盟理事會休會

(巴里三十日發) 國際聯盟理事會는希臘、勃牙利兩國의平和回復을確認하고現地派遣의聯盟國公使館附武官의報告에接하고無期限으로休會하얏더라

…氏는昨年以來日中兩國公使를兼任하야旣히北京에來한이四個이며今後任期가終了되기까지北京에滯在할豫定이라더라

自主案成立은
日本이先驅될터

(北京三十一日發) 自主案에對하야英米外列國으로부터具體的對案을提出할機會가업는즉恐컨대日中兩國案에依하야協議를進하야結局日本案이其骨子가되여自主案의成立을見하리라고信할수잇는바成立後는日本은最先으로棉花綿糸等種目에對한稅率의交涉에入하겟고其成立은恐컨대他의列國보다先驅가되리라고傳하더라

補助艦案의重大化
結局海相對政府의衝突?

(東京電) 海軍補助艦計劃問題는漸次重大化하야或은財部海相對政府의正面衝突을惹起할는지도未知할形勢를示함으로政府는萬一의境遇를念慮하야財部海相이掛冠하면其後任者로서內田信次郞大將을推薦하라고內交涉을進行中이라는說이잇다 尙且濱口藏相은去三十一日加藤首相과의會見에自己의信念에基한主張을披瀝하야頗히强硬한態度를示하고首相도終始이것을聽取만하엿다고傳하더라

最大難關
豫算編成上에

(東京電) 海軍新補充計劃問題는依然豫算編成上의最大難關으로現內閣의暗礁가되라하는形勢를示함에至하엿는데加藤首相은深히此問題를憂慮하야善後策에就하야苦心中이다그런데濱口藏相財部海相의態度는依然히强硬하야首相도問題의解決에手를着치못하는狀態이더라

問題의補助艦案
首相의調停努力

(東京電) 來年度豫算編成上最大難關으로指目되는海軍補助艦艇建造問題는大藏省의態度가强硬하야形勢不利함으로財部海相은三十日夜加藤首相에對하야重大交涉을한結果首相도圓滿解決을策하라고三十一日濱口藏相을私邸에召致하야海相의要請을말하고大藏省의處地를부르매藏相은一次强硬한態度를示하엿스나萬一의境遇에는妥協한途가잇슬는지도未知이라고不利不足의態度이엿다首相은이러하야海、藏兩相의意見을聽取한結果를綜合하야兩相間의妥協에依한解決策을案出하야親히調停에當하리라더라

各地特殊會社와
憲政系의活躍

(東京電) 現內閣은護憲聯立內閣時代부터各地特殊會社를憲政會系의手에收하기에努力하야其方針이畢竟政黨化하야特殊會社重役으로서異分子로指目되는者는擧皆此를自黨人과更迭케하는中이던바現在東拓理事中政友本黨系라看做되는某氏에對하야는江木法相을通하야過般來其辭職을强要함으로同氏는其壓迫을憤慨히녀겨三十日遂히辭表를提出하얏더라

問題의產米增殖案
結局은實現不可能?
大藏省態度依然冷靜

(東京電) 朝鮮總督府가工事費二億六千萬圓、事務費四千萬圓으로써三十五萬町步의土地改良을行코자하는朝鮮產米計劃을樹立하야就中六千五百萬圓은日本政府로부터補助金을受하고殘額二億三千八百萬圓은低利資金及公債社債를發行코자하는中이나政府는自然增收豫想額도明年은六千萬圓程度에不過하며剩餘金도租稅減收其他에割當할必要가잇고其他各省明年度新規要求額도三億五千萬圓에達하야八千萬圓을承認한等의事情에鑑하야產米增殖計劃에以上과如한巨額의補助金을與하기困難할뿐더러且非募債主義에終始하는中인現狀에서此의增發을許할도穩當치못하다하야大藏省에서는非難이高하다더라

朝鮮內銀行合同
促進의必要
松本銀行局長談

(東京電) 朝鮮에開하얏던銀行家大會에出席한後歸東한松本銀行局長은左와如한意見을述하얏더라 朝鮮의金利는日步三錢四厘式의高利로그主要한需要는農業資金인以上產米計劃을云爲하자면爲先此의放任을不許할狀態인바金利高의理由는日本金融과獨立地位에立하야連給이업는點에因함일뿐아니라從來眞正한需要가農業資金임에도不拘하고銀行의貸出金이 堅實한 產業資金으로서用함보다 日本의投機資金에信用당을放任함에그原因이잇는즉對策으로서는銀行의貸出에就하야一層自重을要함과同時에各銀行間의預金協定을嚴守케할方針을樹立하야根本方策으로서는現在關係를有한第一銀行、第十八銀行外에多數한日本銀行이朝鮮과의連絡을開始하야日本資金이容易히流入하도록努力하지아니치못할것임과同時에政府도銀行合同을促進케하야不健全業者撲滅을圖할必要가잇다云云

蒙古禮物의展覽
露國學士院會場에

(哈爾賓電) 遜敏英斯科에서開催되얏던學士院大會에際하야外蒙古代表하야參列한禮物로携行한것은蒙古各王의古地圖、蒙古文의元史十五冊、蒙古王諸公의系譜、蒙人畫家의參考로作成된特別美術品及祝辭等이며此等은모다珍貴할것임으로學士院記念展覽會場에陳列하야一般人士의觀覽에供하기로하얏다더라

露中交涉
‖近近開始
카氏歸任同時

(奉天三十一日發) 露中交涉에奉天側으로부터提出코자한東中鐵道買收問題는其不可能함을覺하고現在有한今後鐵道의行政權의確保와其費用受取를有利하게展開코자하는意嚮으로其他交涉項目의新案方針을決定하엿스며北京의露西亞側委員四名도準備를了하엿는故로카라한氏의歸任에依하야直時開會되리라더라

客年土木事業
水害調查內容

大正十三年度中의土木事業에關한水害狀況을調查하건대損失價額六百五十四萬五千九百五十六圓으로此를種類別로보건대

種別	損失價額
河川	一、五六三、一〇一圓
池沼湖	二、八一〇
道路	二、〇九〇、一三一
橋梁	二、八三三、〇六四
港灣及海岸	二、一五三
溜池及用惡水路	八、五三〇
水道	一、二七五
下水	四四、八九二
計	六、五四五、九五六圓

이며道別로는黃海道의二百四十八萬八千二百六十五圓이最多이고慶尙北道의百五十二萬六千七百二十四圓、江原道의九十六萬八千五百七十四圓이其次이며咸鏡北道는皆無이요咸鏡南道의千七百二十三圓이最少이다 그런데此의維持費別을보건대國費三百六十一萬七千五百五十二圓地方費二百七萬六千五百九十圓府郡島以下에서維持하는것이八十五萬一千八百十四圓이요被害基因은主로
(一)七月十八日로부터二十六日에亘하야全鮮各地에連日豪雨가잇섯고就中에도中部及西鮮地方이甚하며臨津江(京畿)及禮成江(黃海)은沿川諸所에洪水가잇서甚한慘害가잇섯다
(二)八月六日奄美大島의東方으로부터九州를橫斷한颶風은同日夕刻朝鮮海峽에殺到하야半島의西南端을襲하고七日黃海로進行함에從하야暴風雨가되여中部以南就中順天、高興、麗水等은河川의增水가甚하야慘害가多한等에因함이더라

在米同胞의現狀 (二)

九月三十日 미소리州파村에서 金良洙

二、우리同胞의移住歷史

米國안에잇는우리同胞의現狀을 이약이하기前에, 먼저順序上으로오는날과가튼七八千內外의同胞가 이米國에어떠케移住하엿는가를 過去의沿革에照하야多少말할必要가잇다

다시말하면오는날七八千內外의同胞가 全南北米洲의各地에散布하기까지는 決코一朝一夕의일이아니니 그變遷된沿革을찻자면 저어도東西開發會社의創設된事實까지 溯及치안할수업다 卽우리의同胞가 이米國領土內에 集團的으로移住하기를시작하기는 지금으로부터約二十三年前인 西紀十九百〇二年에의일이엇섯다

다시詳言하면 千九百〇二年으로부터 同四年에이르기까지 卽光武七八年(壬寅甲辰)間의前後三年동안에 仁川과其他의우리나라各重要한都市에서 『東西開發會社』라는會社의반연으로募集하야들어온 우리의移住同胞가 卽오는날在米朝鮮人同胞의根幹인가한다

지금부터 二十三年前이라면 相當히녯이약이가되게되엇스나 中國이나日本가튼 다른亞細亞民族에比하면 우리사람의移住歷史가 가장新新한年代에屬하는것이다

勿論以上의移住民이들어오기前에부터 우리의朝鮮사람으로이米國에와잇든사람들이 絶對로업섯든것은아니다 卽米國에어떠한外交的使命을띄우고 來往한우리舊韓國政府의官人들이라든지 或은일즉부터西國의風潮를輸入하기爲하야 이米國에留學하려온 우리의몃先輩와 또本國이나或은 中國을거처멀리이곳까지우리의特產品인 人蔘을行商하려온 所謂『蔘商』들의마지금으로부터 約半世紀에垂오고간年代까지調查한다면 아하는事實을發見하리라 그러나이러한種類의사람들은 여긔서이약이하라는 우리移住同胞의事實과는 同一視할수가업다

어떠튼오는날과가티 永住의地盤을닥갓고 이南北米洲에 各히分布하여잇는 우리在米同胞의先驅者들로말하면依然히卽以上의東西開發會社의募集으로 나온이들인가한다

三、東西開發會社의來歷

그런데이와가티 우리와만흔移住同胞를 이米國에媒介한東西開發會社라는것의正體를이약이하자면 多少複雜한事實이만라 그러나우리朝鮮과直接의關係가잇는 部分的事實만을若干紹介하자면不可不이會社와當時에直接間接의關係가잇는『존스』와『예슬라』兩人의個人紹介를하는것이무엇보다도捷徑일가한다

卽以上의『존스』氏로 말하면 當時우리朝鮮에 宣敎師로와잇든사람인바 仁川監理敎會인가를治理하든사람이오 또其外의한사람인『예슬라』氏는 舊韓國政府의雇聘을바더 仁川稅關事務를마터보든사람이다 이『존스』『예슬라』兩人이 各各方面은다르나 當時舊韓國政府에幹旋하야布哇移民의開始를慫慂하엿든것은同一하고 또後記의『예슬라』氏로말하면 東西開發會社의朝鮮總支配人인地位에 잇섯든것도事實인가한다

그러면이두사람이 果然어떠한動機로 우리朝鮮사람들을移住케하기에努力하엿는지는 여긔서布哇의深究할必要가업스나 어떠튼 當時布哇砂糖業者間에『耕主同盟會』라는同業者同盟이잇서서 더욱亞細亞移民의吸收를 銳意腐心하얏든것이오 또하서 이耕主同盟會의依賴를바더 以上兩人이朝鮮에서活動한것인가한다

그러고以上『예슬라』氏로말하면移民한사람에게米貨三百弗式을耕主同盟會에서바더가지고 모든移民의布哇上陸까지의差備를擔當한것이니 卽純全한勞働仲介業者에不過하다

이『예슬라』氏가 其後省目이不詳한 先給한旅費인가를布哇同胞에게追徵하더다가 그幹事人이幾死의紛擾까지 當하게된事實까지잇서 氏의爲人에對하야는 자못區區한褒貶이잇스나 어떠튼『존스』와『예슬라』兩人은 우리在米同胞의 永遠히記憶할사람들인가한다 하물며兩人은 다이미地下의故人이된以上 우리는더욱그冥福을爲하야 祝하는것이다

麵屋勞働組合

平壤府內里麵屋勞働組合은敬賃里七十三番地에會館을買收移轉하는同時에會務를一層擴張하는中이라더라(平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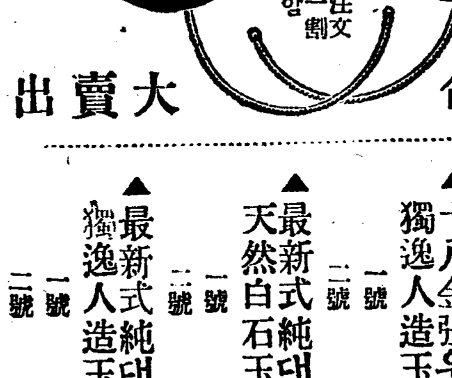
八面鋒

○所謂產米增殖計劃、大藏省에서속이곰엿다한다、下岡君과同病相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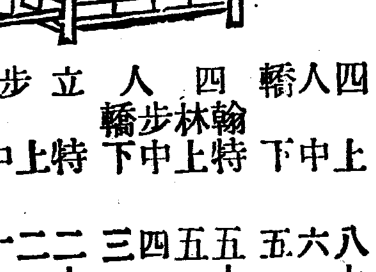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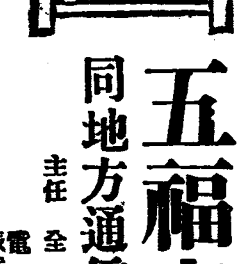
○또同省에서는朝鮮銀行界는從來株式貸出의弊害가잇섯스니今後는產業貸出을希望한다고、眞所謂成服後藥方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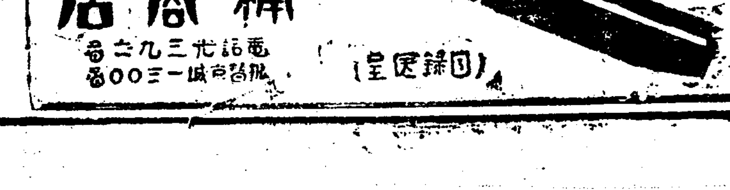
○平壤에서、崔治郞의父는拔生을거러說諭願、拔生은治郞의母를거러告訴하엿다有是父有是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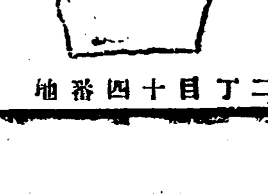
羊君一鳥藥一鳥雀
藥에는品質의優劣과價格의高歇이잇슴니다眞正한價格에優良한品質을擇宣는것이眞實로健康을圖하는것시올시다
特히一言을更告宣올것은近日에小利를貪宣는者가잇서月增하야有名無實한品을高價로서…特別히本局의…
十全大補湯 三圓五十錢 / 鹿茸大補湯 全 / 六味湯 全八 / 六味丸 全 / 八味湯 全三 / 八味丸 全 / 四六湯 全 / 復和湯 全 / 倍四物湯 全 / 水土湯 全 / 肥兒湯 全
百斤以上에原價를打算하야賀易商故로良藥材를特品과價格에特殊宮을一次實驗하시옵소셔
京城授恩洞三十三番地 補藥專門公司


最新式 秋季聯合 大賣出 先金注文이면一割引除함
▲二十金張우인다 天然白石玉入價 一號 拾貳圓 二號 拾圓五拾錢
▲十八金張우인다 獨逸人造玉入價 一號 五圓八拾錢 二號 四圓八拾錢
▲最新式純대모體 天然白石玉入價 一號 九圓八拾錢 二號 八圓五拾錢
▲最新式純대모體 獨逸人造玉入價 一號 四圓五拾錢 二號 三圓五拾錢
各種眼鏡專門都賣商 京城鍾路二丁目八三番地 文明堂 主 徐奎寅

和洋家具 椅子卓子 箱帳立 木藥 土建設計 工藥監督 施工 請負業
親切 叮嚀 信用 遵守 遠近地方注文特別廉價提供
三友組工場 京元線鐵原邑內 電話一〇七番

開業三十週年紀念
本人이三十週年間地方人士에多大한愛顧를蒙하와營業이逐日發展이옵는바今에右를紀念키爲하야特別히左記各種物品을廉價로酬應하야顧客의從來厚意를報答코자하나이다
營業種目 平壤水木、紬九羅屬、紬緞布木、洋屬各種、婚禮用具各種其他雜貨

四人轎 上 八十五圓 中 六十圓 下 五十圓
四人輪林步轎 特 五十五圓 上 五十圓 中 四十圓 下 三十圓
步立人轎 特 二十五圓 上 二十圓 中 十八圓 下 十五圓
以上物品은善手職工을聘하야精製하오니一次試用하시오

平壤鍾路 五福商店 同地方通信販賣部 主任 金興瑞 電話一〇七四番 振替京城一四六六五
本店에서每月定價表를發行하오니請求하면付送하겟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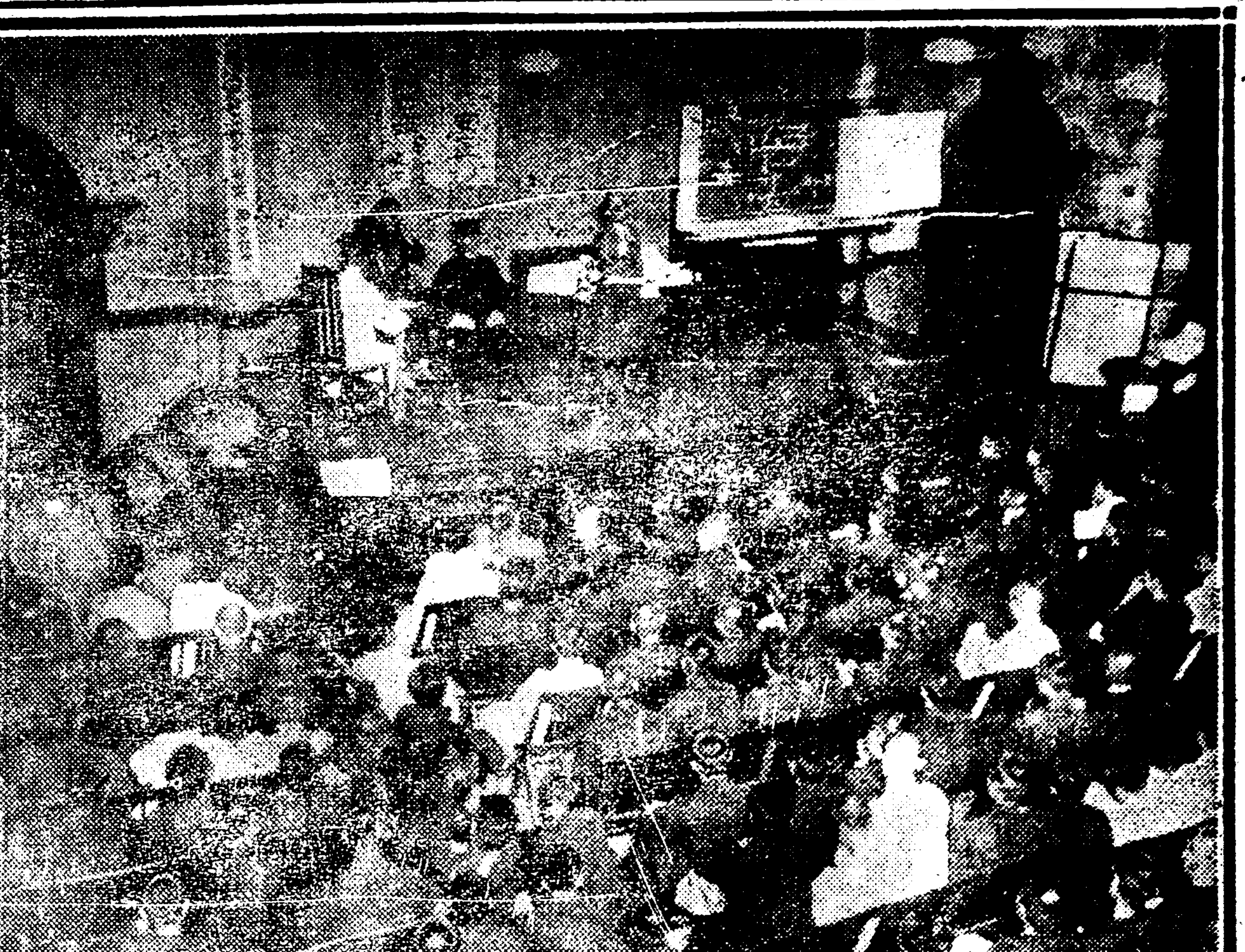
萬年筆 
英國製ウオターマン パイロット セーラー メープル 一圓以上各種
京城鍾路二丁目七一 楠商店 電話光三九六番 振替京城一三〇〇番 (目錄呈送)


帽子及洋服衣 都散賣商 高慶洋行 京城府鍾路通二丁目四十四番地 目錄請求則無料進呈

十月三十一日晝間부터 ◎유니버ー살入社第一回特別大作品 大冒險連續大活劇 鐵의人 ◇全十五編三十卷中、第一回二編四卷上場 ◆유特別提供◆ 無名怪人 全六卷 子레이돈컬氏大猛演 痛快淋漓 駿馬亂戰 全五卷 그리고또喜劇四卷實寫一卷 松竹 유社 特約 團成社 電光九五九番

十月二十九日木曜부터名畫公開 松竹키네마社 實寫 雪의北越 全二卷 米國푸리푸아ー드映畫 바ー드라이퀄氏主演 正喜劇 煩悶의忠者 全七卷 獨逸데구라우푸아社超特作 씰마리카이퀄氏主演 한나ー루·후데지에鍵助演 見하시요! 獨逸文藝大映畫의出現을! 大名畫 지ー구후리ー드 全十卷 日活 特約 優美館 電光三九五番

秀才金鋼喆大人齋基氏以宿患陰九月十三日丑時別世玆以告訃 嗣子 … 護喪 … 高陽郡碧蹄面大慈里 … 會葬 … 葬地 高陽郡碧蹄面大慈里 …



◇경계중에데일회과학강연◇
삼십일일밤종로청년회관에서──(조간사그참조)

坡州에 拳銃青年
현금일천원을청구타가 이백원을밧고도라갓다
犯人을逮捕코자坡州署活動

파주군 주내면 원봉리 (坡州郡州內面遠峰里) 부호뎡범석 (鄭範錫)의집에는 일일오전두시경에 삼십전후의 륙혈포가진청년두명이 드러와 주인을불러 우리는 상해림시정부(上海臨時政府)에서온 사람이니 돈일천원만 내히라고하매 주인은 아직현금이 그리업다고 한후잇는돈 이백오원을 주매두청년은 돈을바더가지고 구의주도로(舊義州道路)를지나 벽제 방면으로종적을감초고말엇다는데 이 소문을들은 파주 경찰서에서는 각처로수배를하는동시에범인 체포에노력중이라더라

社會問題講演 開會前에禁止
경북안동경찰이 김단야씨강연을

경상북도안동군(慶北安東郡)안동로우회(安東勞友會)에서는경성(京城)에서 우리운동을 위하야 각방면으로 만흔공헌이잇는 김단야(金丹冶)씨를청하야지난 이십구일에 사회문데강연회(社會問題講演會)를열기로되야지난이십팔일에 당디경찰서에미리계출을 하엿스나 당국에서는 계출을 밧고강연하기권에 요령을검어달라함으로주최측에서는 준비에 분망하든중 개회를삽사시가량이나 압헤두고 강연요령을취어가지고 간속 경찰서에서는강연할요령만써올것이아니라 연사의 말과 『스지가기』(筋書)가 일호의 차착이업게 하여달라함으로주최측에서는사실에잇서 일호의차착이업게할수업슬뿐아니라 지금은 시간관계로도도뎌히불가능함을 말하엿든바 당국에서는 그러면강연은 허가할수업다함으로 주최측에서는 여러가지로 질문과 교섭을하엿스나 종시듯지아니할뿐 아니라 강연할요령을 긔록한것도 내여주지아니하고 이것은 당신네가 반드시 경찰을혐의하야 신문지상에 보도할터이니 증거품으로 두겟고 금일의강연은 당신네가스사로하지아니한것이오 당국에서금지하는것이 아니라고 애매한답변을함으로 주최측에서는 처음에는하게두엇다가 임박하야 이러한조건으로 금지함을 분개한다하며 당일에강연하려든 연데는종교와과학(宗敎와科學)이라더라(안동)

崔六堂의講演에 聽衆無慮二千名
경주고적견학단일행이 무사히경주에도착된날

경성려행안내사 (京城旅行案內社) 주최와본사후원의경주고적견학단(慶州古蹟見學團)은예뎡파가티 지난달 삼십일밤에출발하엿다함은 이미 작지에보도한바어니와 그일행은도중수원(水原) 조치원(鳥致院)옥천(沃川)동역에서 단원이 증가되여서삼십일일아츰여섯시에 무사히 대구역(大邱驛)까지도착함에또다시 그곳에서 단원삼십명이참가하야 총단원은 칠십여명으로되여서 동일아츰일곱시에 동역을출발하야 동일한시경에 경주역(慶州驛)을 통과하야 동원오후한시에 무사히불국사역 (佛國寺驛)까지 도착하엿다 이곳에서 잠간몸을 휴식한뒤십오리가량을 도보로 동두시반경에불국사(佛國寺)까지 도착하야 그곳에서 점심밥을 먹은뒤다시석굴암(石窟庵)을 견학한후 동[illegible]시경에 다시경주에 도라와서 동일밤에경주공회당(慶州公會堂)에서 최남선(崔南善)씨의학술강연회가 개최되엿든바 텽중이수천명이되여 실로 대성황을이루엇고 일행은 모다무사하다(경주특파원뎐보)

서울靑年會 鄭栢氏도拘引
신민부사건으로

얼마전에 신민부(新民府) 사건의 관계자라하야 북만주(北滿洲)로부터 드려온 한빈(韓彬)씨를비롯하야최창익(崔昌益)리경호(李京鎬)등제씨가종로경찰서의 손에검거된지 얼마되지안흔수일전에 또다시『서울』청년회(靑年會)뎡백(鄭栢)씨와북간도 룡정촌(北間島龍井村)으로 부터드러와 데재중이든 김정긔(金正琪)씨가 또돌연히 검거되엿슴으로 일반에서는 매우주목하야오든터인데 이제 탐문한바에의하면 권긔한빈씨와 삼씨는 신민부 사건으로그와가티 된것이나 김정긔씨는해외모종사건의 관련으로그와가티 된것이라더라

面目一新한 朝鮮『에쓰』協會
선언을발표하고 임원을선뎡하엿다

지난구월 이십이일 오후칠시부터 중앙긔독교청년회관(基督敎青年會館)에서재경『에쓰페란토』연구자 제씨의 발론으로 이래오래동안 협의하야오든 조선에쓰페란토 협회(協會)가 부진의상태에 잇슴으로 이를혁신하는동시에 인류(人類) 생활을 국제화(國際化)식히라는 취지로 아래와가튼선언을 발표하는동시에 새로히위원을 선거하얏는데 강습회는상설로매월초에야학(夜學)으로초보부터시작한다하며장소는 견지동(堅志洞) 팔십번디 동아학교(東亞學校)이라더라

◇宣言

一、사랑과理解로한兄弟가튼生活을하려고하는것은人類의오래된理想입니다 뻐는이미成熟하엿슴니다어큰理想을實現함에는『에쓰페란토』를除外할수가업슴니다『에쓰페란토』만이오직그길입니다이에우리는『人類愛』의實語인『에쓰페란토』의宣傳普及의가장緊切한意를애달아共鳴의마음에게이宣言을呼訴합니다

◇委員

宣傳部 白南奎 洪命憙 任昌淳 姜邁 金鎔浩
編輯部 李一 張錫台 金德洙 金億 金翼彬
社交部 朴德永 卞榮魯 辛鳳作
庶務部 崔善益 崔元植 張世宗 李承根

運動競技
體育데이는明日 京城運動場에서

十一月三日은體育데ー일오로京城府에서는當日의競技를新設京城運動場에서여러가지競技를盛大히開催하리라함은旣히報道한바어니와期待하든當日도明日로臨迫되여서그동안諸般準備를專한京城府에서는豫定과가티明三日午前十時부터京城運動場에서擧行하리라하며그프로그람은알래와갓다더라

午前의部
一、午前十時初等學校兒童及野球庭球關係者一同그라운드에集合 府尹人事
二、午前十時十分부터初等學校運動競技及聯合體操開始午後一時終了退場
三、午前十時부터庭球開始午後五時終了
四、午前十時半부터初等學校兒童野球決勝戰正午까지終了 (形便에依하야午後로밀릴수도잇슴)

午後의部
一、午後一時女學校生徒及野球關係者그라운드에集合
二、午後一時부터中等學校野球開始午後四時終了
三、午後一時半부터女學校運動開始午後四時終了

庭球戰

善隣{小杉 河村	中央{B組
京師{細田 [illegible]	京工{野村 加藤
中央{A組	養成{李 [illegible]
養正{[illegible] 李	京師{三浦 [illegible]
京商{[illegible]田 吉村	京工{早[illegible] [illegible]
遞信{[illegible] [illegible]	二高{李 李
養正{徐 [illegible]	京商{古賀 中川
二高{安 吳	遞信{[illegible] [illegible]
善隣{瀬下 安藤	普成{[illegible] 林

以上

野球戰
一、少年野球決勝戰
一、培材對中央決勝戰

朝鮮勞總의新陣容
전국세포단데의투표로 집행위원오십명을개선

작년사월에집회금지(集會禁止)를당한 조선로농총동맹(朝鮮勞農總同盟)에서는 각방면으로해금운동(解禁運動)을하야왓스나아직까지 해금(解禁)이되지못하야 정긔대회(定期大會)도 열니지못하게되야서 모든 사업의 진척은 물론이오 만긔(滿期)된 중앙집행위원(中央執行委員)의 개선(改選)도 행하게되지못하게되엿슴으로 만흔지장이 잇섯든바 전국가맹단데(全國加盟團體)에향하야 위원의개선 (委員改選)을직접으로 투표하는것이 엇더하냐고 문의한결과

절대다수 (絶對多數)로

투표(投票)케결뎡되야각가맹단데에 투표용지(投票用紙)를배부하엿는데 대회에서행함형식을 서면으로 밧구어서 투표케하는동시에 개표(開票)위원(委員)까지 도선거하야 달라하엿다함은 긔보한바와 갓거니와 지난달 이십일까지 접수한 위원선거(委員選擧)의 투표와개표위원(開票委員)의 정리를 마치게된바개표위원은 서정희(徐廷禧)권오설(權五卨)윤덕병(尹德炳)삼씨가 선거되야 십월일일부터 십일일까지에 개표한결과 다수로 아래와가티 오십인이새로운 중앙집행위원(中央執行委員)으로 당선되얏다더라

◇新中央執行委員
徐廷禧 馬鳴 權五卨 尹德炳 鄭雲海 申東浩 金基洙 金宮山 鄭仁琰 朴禎淳 李昌洙 金裕昌 金完根 辛命俊 李益秉 姜達永 金大鳳 車今奉 權泰容 金明奎 趙佑濟 李承燁 安基成 李殷植 曹景淑 裵德秀 李相薰 崔允鈺 陳秉基 申輔俊 蔡奎恒 劉斗熙 朴來源 徐丙寅 金有鎔 朴補權 李準泰 金泰植 金智浩 吳學允 李忠模 朴福永 金洪完 印東哲 鄭泰重 殷在基 李圭庚 [illegible]亭澤 車周相 李起洪

新任委員會
십일월시팔일에

조선로농총동맹(朝鮮勞働總同盟)에서 중앙집행위원(中央執行委員)을개선하엿다함은 별항에보도한바와갓거니와이제집행위원의개선(改選)을따라사무인계(事務引繼)라든지새로운사업의계획을 세우기위하야 신임중앙집행위원(新任中央執行委員)

鐵路署에서

련락을취하야 자못 …
음계속 하여오든중 수일전에서 …
대 그후에도 당경찰서는서원을 빈빈히 경성과 재령에출장시 …
엿다가 삼십일일밤에 … 하야 그날밤을 새워가며 …
사건의 … 절대비밀에부 … 치어 …
지고 조가를차저갓더니 조가는 …

자긔여서 죄를바더야할 …
… 계속되여 온듯하야방 …

自動車研究所 所長에게속고
설유원을데출

경상북도연일군(慶尙北道延日郡) 창주면 눌래리(蒼洲面訥台里) 안봉진(安鳳振)(二六)은몃해전부터 자동차운뎐수(自動車運轉手)에 뜻을두고 긔회를긔다리든중 경성시내강긔뎡(岡崎町)자동차연구소(自動車研究所)에입학하야 십칠세이상으로 두달동안만 수업하면 운뎐수가 될수잇다는그연구소 입학안내서를보고 얼마간잇는토디를뎌당(抵當)잡혀일백오십원의 돈을만드러 가지고 지난팔월이십오일에 상경하야 자동차연구소에

수업료로

구십원을 내이고 입학하야 십월십구일에 수업을한후 경긔도에서 보는 자동차운뎐수 시험을 보려고하엿스나 만십팔세가 아니라고 시험자격을 주지안음으로 다시고향으로가려고하나 려비가업서 진퇴량난이되야 연구소장(所長)인 소택모(小澤某)에게 안내서로써 자긔를 속인것을항의하는동시에 집에갈 려비만달라고하엿스나 소택이는 절대불응함으로할일업시이십칠일에

산룡서에

출두하야 설유원을 뎨출하여달라고 애원을 하엿는데 이에대하야 룡산서 보안계주임(保安係主任)은말하되 이가튼일은 한두번이 안입니다 처음입학할때에 구십칠원을 수업료로 바든후 한주일후에 그만둘지라도 구십여원을 전부몰수하는불법한 행위를함으로 다시이가튼불법한 행위를하면 영업허가를 취소식히겟다고 까지 극단의 말로 여러번 엄중히 설유를 한일도 잇슴니다고하더라

賣笑婦되기실혀 自殺하려든女子
일젼짜리동전세닙을먹어

청진부신암동(清津府新岩洞)팔십육번디 음식뎜영업 장모(張某)의집에 고용(雇人)으로잇는 본적경성부서대문뎡(京城西大門町)출생인 김명화(金明化)(二三)라는녀자는지금으로부터약 이개월전에 권리주소의 장모의 집으로 오게되며 동숙하고잇던차 장모는영업불황으로다액(多額)의부채로인하야 간도(間島)디방으로 영업장소를 옮기려 계획하고 전긔김명화(金明化)를 다리고가서 매소부(賣笑婦)로두면 원래미인인 관계로 영업이 상당하리라고 이거(移居)를 준비중인데 이것을 알게된김명화(金明化)는자긔가 만일

외국까지

가서매소부노릇을하게됨은 별우나 이팔청춘의몸으로 원통하다하야 지난십월이십칠일밤여덟시경에마침주인이업는틈을타서 일전짜리동전(一錢銅錢)세닙을목에넘기고 자살하려다가 마침 목뎌움을당하지못하고 주인에게 발각되여곳 그곳 신암동파출소(新岩洞派出所)에알리엇슴으로경관이입검한결과생명에는무관하다더라

日本遠征온米國娘子軍
미국녀자야구단

미국녀자야구단은미국『뉴욕』『시카고』『필라델피아』에잇는 녀자 야구단으로 천구백십구년에 조직이되엿는데 그단원가운데에나히는열세살로붓터 스물여섯까지되는 랑자군(娘子軍)이며미국안에서 남자(男)군팀과십칠회(十七回)를경기하엿고 지금일본각디로 순회하다가 일개월반후에 귀국하리라는데 감독은미국야구협회 리사(理事)인『엔스미드』씨이며단원의 성명은아래와갓다

감독『엔스미드』부처, 부감독『해밀톤』부처,주장(主將)『오가라』양(二〇)『피처』(投手)『루스』양(二〇)『가란』양(二一)『칸스』양(二〇)『캐처』(捕手)『콘린』양(二〇)『맥히컷비스』양(二五)『펄스트베스』(一壘)『상크』양(二三)『째큐베스』(二壘)『노란』양(二〇)『써드베스』(三壘)『커닛』양(二〇)『우라잇필드』(右翼)『채스터』양(一七)『래프트필드』(左翼)『간스』양(一六)『쎈터』(中堅)『이-큰』양(二〇)『숄스탑』(遊擊)『호-돈』양(二三)
이우에선수중 몃사람은『필라델피아』시에 잇는 중학교 의하과(夏期科)녀학생이더라

李完用勢力下에 貸付返還强要
십년동안이나조림한산야를 리완용의조부분묘빙자하고
貴族勢力에屈服된忠南道廳

충청남도 연기군 전의면신정리(燕岐郡全義面新井里) 오봉룡(吳奉龍)씨가 대정사년 십일월중에 전긔산정리에잇는 일백십일번디의림야십이정륙반 (十二町六反)의대부허가를 바더조림한결과 상당한 성적을엇고또그산판에심어잇는 밤나무(栗木)에서 열섬이상의 수확을엇게되엿는데 작년십월 이십오일에 충청남도령 수뎐기사 (守田技師)가 도기수와 면장을 배석으로안처두고 전긔 오봉룡씨를불러다노코 그대가 대부허가를 바든 신뎡리산에는 리후작완용씨의 선조분묘가 잇스니까도로내여노라고 권고도 하여보고 듯지아니하면

직권으로

허가를취소도 한다고 하다가 결국오씨가권세에 굴복하고서는 산야를도로바치고 하는 도텽의 요구에 응치아니함으로 기사는 무엇을 생각하엿는지산에 올려가서 묘표(墓標)하기위하야산위에략 사반가량을 긔정하엿든것을보고 조분구실을삼아 이산은조림하기로 대부의허가를바더가지고 긔정하엿스니까 조림령(造林令)에 위반하엿스니 즉시직권으로

허가취소

하겟다고도라간후 드듸어 십이월삼일부로대부허가의 반환명령이 나왓슴으로오씨는 일변으로총독부와 도령으로 탄원서를 데출하엿다는바이소문을듯고 그곳 인민들은 권긔와가튼 소위귀족의 행패가 심하고 관권의압박이 자행함에 대하야 원성은날로더하고 당국에서는 그후로여하한 조처가업서 권긔산판은 리후작의 당질되는리회구(李會九)와기타여러

리가들이

나무도베이고 산판에 밧도지여 먹는터이더니 지난 구월팔일부터는 연기군령에서 전긔오씨를불러다가 일백오십원을 내여주며 그간대부료도만히바치엿고조림하느라고애도썻슴으로 이것을 주는것이니 바드라고 권고하엿스나 오씨는 그돈을밧지아니하고 내가 심은 나무는 내가베혀갈것이니까 그리알라고하엿더니 그것은 국유산에 심어잇스니까 필수업고이와가튼 일백오십원이라는 거액을주는것도 생각하야 주는것이라고 감언으로되엿스나 일향 오씨는 밧지아니하고 지난달

이십팔일

에충청남도령으로가서 석지사(石知事)의 면회를청하엿더니 석지사는 황리사관(黃理事官)에게 밀우고 이약이하지아니함으로 오씨는 마지못하야 황리사관과 면회하고 억울한말을 하엿든바 황리사관은 첫재일백오십원의 금전을바다주고서 하는것은 도덕상에서 나오는것이니 바더가라고 하며 그대가그산을 대부하지 아니하엿스면 이런일이 발생되지 아니하엿슬것이라고 요령부득의말을하며 그간든

비용으로

일백오십원을 바더가면 이다음에 또조흔긔회도 잇슬것이라고 어린아이달내이듯 하엿다는바 오씨는하도긔가막히여 내가심은나무는 내가다베혀갈것이니까 그리알나하고 그대로 도라왓다는데 오씨는장차 여하한행동을 취할는지알수업스나 귀족의권력에 놀리여서 법령에 의지하야 대부허가하야

십년이나

조림한산야를 무조건으로 리완용의 선조의분묘가잇다고 탈하야주는 도당국의압박을 비난한다더라(조치원)

惡德醫師의悖行
여러가지죄악

전라남도장성군(全南長城郡)의 소생으로 부산에서의원을 개업하고잇는김○○(金○○)는부산형무소촉탁(釜山刑務所囑托)을 위시하야
釜山西部青年會長
富民公立普校校醫
同校學務委員
私立永明學院長
등그밧게도 무슨회사의 간사나 하야 평창한 견서(肩書)를가젓는데 그는부산재판소압헤 사법대서소(司法代書所)의간판을달고잇는김모와

결탁하야

된금준의홍치박멸사건으로방금옥중에서신음하고잇는부산청년회간사모씨의가족을 꾀여 보석출옥(保釋出獄)케하여주마하고간사한수단으로 넉넉지도못한금원 얼마를편취한사실이 폭로되자 부산청년회 에서는 이런 분자를 도저히용서할수업다하야 권고대서자모와 함께 엄격한사회뎍제재를 내리우기로 결의하엿는바 그런뒤몃날이못되여 그는

열일곱살

영주동감로암(甘露菴)에 된녀학생으로 동래엇든과부의 외딸인박○○(朴○○)를공부식혀준다는구실로다려다놋코주야로분간업시출입하며 염치와톄면을 다이저버리고 참아옴길수업는 괴상한추태를 다드러내여 이말이세상사람의입에 오르나리게되매 불한아를 태산가티 바라고잇든그의홀어머니는 분함을 참지못하야가슴을치며 죽는이 사는이하다가 말경엔할업시 딸을차저가고말엇는데 청년회에서는 뒤조처이려나는 이비인간의 행동에대하야 평소에 그가무슨학원장이니 무슨학무위원이니하야 스사로 제법교육가인체 하는그만큼 하로밧비사회뎍으로매장(埋葬)치안흘수업다고분개한다더라(부산)

養子確認請求訴
복까지입히고파양한다고 미망인을거러서확인소송

시내당주동(唐珠洞)김간란(金干蘭)은 이십구일에 시내관텰동(貫鐵洞)김연호의미망인조의청(趙宜誠)을상대로경성디방법원(京城地方法院)에 양자확인소송을 데긔하엿다는데 그내용인즉 전긔김연호가 사망하든지 넉달만에 자긔의서모와 자긔남편의실형과 의론한후 열촌빨가인김간란을 양자로 결뎡하엿야복까지 입힌뒤이잇슴도불구하고지난오월경에몰연히김간란을파양한다고그생가로돌려보냄으로그와가티 소송을 데긔한것이라는데 피고조의청은 수십만의재산가이라더라

海英舍職工盟罷
네가지조건을요구코저

부내 수은동(授恩洞)에잇는 해영사 인쇄소 (海英社印刷所)의 문선과(文選科)식자과(植字科)량과직공 수십명은 아래와가튼네가지조건으로지나간 이십구일부터동맹파업(同盟罷業)을단행하엿는데그들의주장인즉전긔해영인쇄소에서는직공모집할때에『지금은임금이다른 인쇄소에비교하야 뎍엇스나 두어달만 지나면 승급을식혀주겟다』하야직공들은 그것만밋고 헐한임금에 이때까지 참어왓스나 두날이지나 넉달이되도록 약조를리행치안을뿐만 아니라 뎌한시간에 일분만 늣저도 삼십분식의임금감제(賃金減除)를단행하는등 직공에게 가혹히한다하야 그가티 동맹파업한것이라는데 요구조건은 아래와갓다한다

◇要求條件
一、昇給에關한件 每日給七十錢以上밧는職工에게는五十錢、一圓以上밧는職工에게는三十錢增給할것
一、時間에關한件 遲參에對하야正確한時間計算으로賃金減除할것
一、公休日에關한件 例前約束과如히公休日에對한賃金을支拂할것
一、解雇에關한件 本條件이解決된後에는無故히解雇를하지말것
以上

『돈은훔첫스나 盜賊놈은아니오』
작일밤신공덕리의도적놈이 금고안에편지를써노코갓다

삼십일일 오후열한시경에 시외신공덕리(新孔德里)에서 선술장사하는 리운서(李雲瑞)의집에는 도적이드러와서 손금고(金庫)를 들고 밧게나가 금고속에든 현금일원을 쓰낸후『나는도적이아니라 젊은녀자가잇는가하야 드러왓더니 녀자가업슴으로 거저나오기는 자미가업서 돈을 가저가니 그리알어달라』는의미의 편지한장을써서 금고속에너코 간것을 발견한주인은즉시 소관파출소에 고소를하엿다더라

失戀하고飮毒
녀자의배척밧고 쥐잡는약을먹어

본적(本籍)을 강원도영월군(江原道寧越郡)에두고 방금원산부석우동학성려관 (元山府石偶洞鶴城旅館)에 류숙하고잇는리철(李澈)(二五)은 삼십일밤 타인의 잡된긔회를 타서 쥐잡는약을먹고 신음하는것을 려관주인이 발견하고 즉시정상의사(井上醫師)를 불러 응급치료를하엿스나생명이위독하다는데 이제그자세한내용을들으면그는엇던녀자와 사랑이깁헛든바일천에그녀자에게배척을당하고정신에상이 발생하야 그와가티약을먹은것이라더라(원산)

世上悲觀하고 自家에다放火
오십세로인이

보은군 보은면장신리(報恩郡報恩面長新里) 김덕춘(金德春)(五四)은 지난십월이십일 오전한시경에 자긔집에다 불을노와 동리를소동케 하엿다는데 그사실의내용인즉 김덕춘은 자긔형과 장자가변사(變死)한후항상 이세상을 비관하더니그날마참술이 취하여자긔도 죽겟다는 마음으로자가에불을노코 방으로 드러가죽으랴고 할즈음 가족과 동리사람들이발견하고 즉시진화 하엿다는데 김덕춘은경찰의손에 취됴를당하고 지난이십륙일에 청주검사국으로 압송하엿다더라(보은)

誘引子弟하야 금전을사취

선천읍내(宣川邑內)에잇는리찬석(李燦錫)(三六)은몃달전에선천군심천면룡모동(宣川郡深川面龍模洞)에잇는 뎐익경(田益京)(二二)을 감언리설로 꾀이여 시내 세상뎜에서 물건으로 수십원어치를 뎐익경의일홈으로 사가지고 자긔집인 선천으로넘어가서 다시팔아서자긔의 호구생활을하여오던중 뎡산에서 사긔한금액은적으나 선천에서 련대보증으로 뎐익경의명의로 채용하여 사긔하야먹은것은 수백원에달하리라는바 몃칠전에 범인은 뎡산경찰의손에 톄포되여 몃날동안 취됴를마친결과 사긔취재한일이 사실임으로 이십구일에 신의주로압송되엿다더라(뎡산)

驪州公普 重傷學生危篤
치료코자상경

긔보=려주공립보통학교오학년 생도들이 운동장 정구코-트를 수리하기위하야 흙을파러갓다가 오명의중경상자를내여 안나의원의 입원치료한다함은긔보한바인데 그중의 데일중상자 림완긔(林完基)(一五)는 생명이위태하고 권긔 의원에서 치료하기가극란하야 경성총독부병원의 입원코자 지난삼십일오후삼시경에그학교직원 남궁연(南宮楝)씨대동으로자동차로출발하엿다더라

종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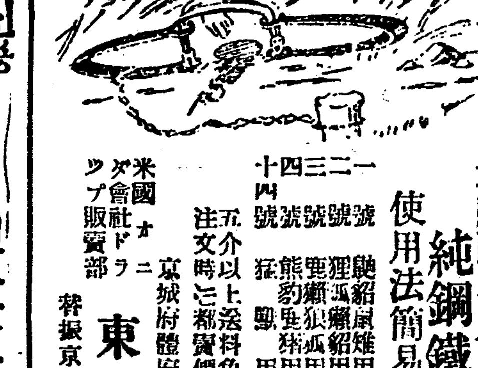
▲되人독어라는군 굽혼구두에쌀는「스카-트」를입고▲종로큰길이좁다는듯휘돌고단니는소위사이비의신녀성(似而非之新女性)은 자종자션만아니라 누구든지 눈쌀이시여 못볼것이다만은▲그러타고지금세상에 보기실흔 시테편「장옷」을 벌뒤길처까지 눌러쓰고 거리에 뒤느진내외법(內外法)길을것는것도속잇는사람은 차마 못보겟더라▲그나제법 내외나착실히 되엿스면조흔련만 참말남에게 보혀서안될 얼골이 오고가는사람의눈에 제일먼저띄이는것을엇지하나▲여보시요조선의어머니들이어! 제발그『스카-트』『굽놉흔구두』도좀지버치우고▲보기실흔『장옷』도버서버리는것이 엇덧슴닛가?

朝鮮催眠術協會創立十週年記念大特典!!
催眠術
絶對成功保證
若不成功이면 敎授料를返金
今般本協會에서特別公開傳授하는催眠術은◆難病治療◆惡癖矯正◆家庭和樂◆人格[illegible]◆犯人自白◆禁酒禁煙◆死人相逢◆人心透視[illegible]
十週年記念特別講習會!
講習 第一回 自十一月十日 至十一月三十日
日字 第二回 自十二月一日 至十二月二十日
(定員에滿할時는期日前이라도謝絶함)
本協會創立十週年記念을祝하기爲하야平時에는會費金五十圓以上을納付하여야하는것이나
今般講習會에限하야 敎授料金 參拾圓也
再來하지안는 此好機를勿失하라!!
京城府黃金町五丁目百〇四番地 朝鮮催眠術協會

謹告

朝鮮新聞은 지난明治二十一年에創刊되바 爾來三十八個星霜의長久한歲月동안에 가장光彩잇는歷史를가지고 終始一貫으로民論을代表하야 朝鮮統治에貢獻함이實로多大하나이다
今般에時代의進運과新聞界의趨勢에鑑하야 우리社의組織을 株式制度로變更하옵고 下記不肖等의經營의任을負하온同時에 더욱더욱新聞紙의使命을本義로삼으며 不羈獨立을信條삼아 公正한言論과 迅速한報道로써 社會信賴의萬一이라도 報答코저하오니 滿天下諸彦은바라건대 眷顧指導하심을切企하오며 累儀나마 簡單히 仰陳하나이다
大正十四年十月十七日
京城太平通 株式會社 朝鮮新聞社
取締役社長 牧山耕藏
取締役副社長 權藤四郎介
專務取締役 竹田津吾一
取締役 小橋一太
取締役 渡邊定一郎
監査役 松田源治
監査役 齋藤久太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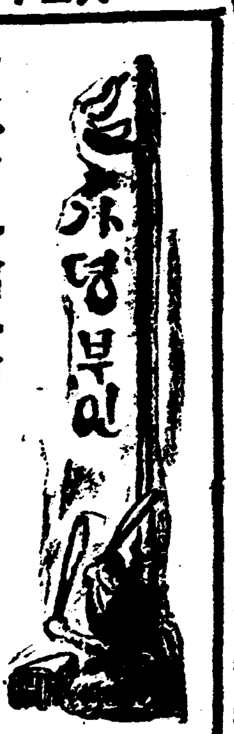
京城府觀南洞一四〇番地
布木 綢緞 苧羅 洋屬 各種
同仁商店
店主 金仁培
主務 洪慶五
電話光化門四二七番
地方注文은代金引換으로迅速酬應함



米國直輸入 純鋼鐵捕獸器
使用法簡易危險絶無
一號 鼬貂鼠雉用 一圓四十錢
二號 狸獺貂用 二圓五十錢
三號 狸狐獺狼用 三圓五十錢
四號 熊豹狸猪用 四圓五十錢
十四號 猛獸用 九圓八十錢
五個以上送料免除多數注文時는都賣價도低落
米國オニダ會社ドップ販賣部
京城府體府洞七五 東興商會
振替京城一四、五三六

고무신은신용

잇는지구표요
견고한고무신은 지구표외에또업소
合資會社 朝鮮고무
京城蓬萊町一丁目八八番地 電話本局二一四二番 振替京城七五七二番
일년간신는신은 지구표고무신이요



빗자최처저가니 회포가무궁하다

일행삼백사명의일대가 경성역에서경복궁으로

第十三回婦人見學團隨行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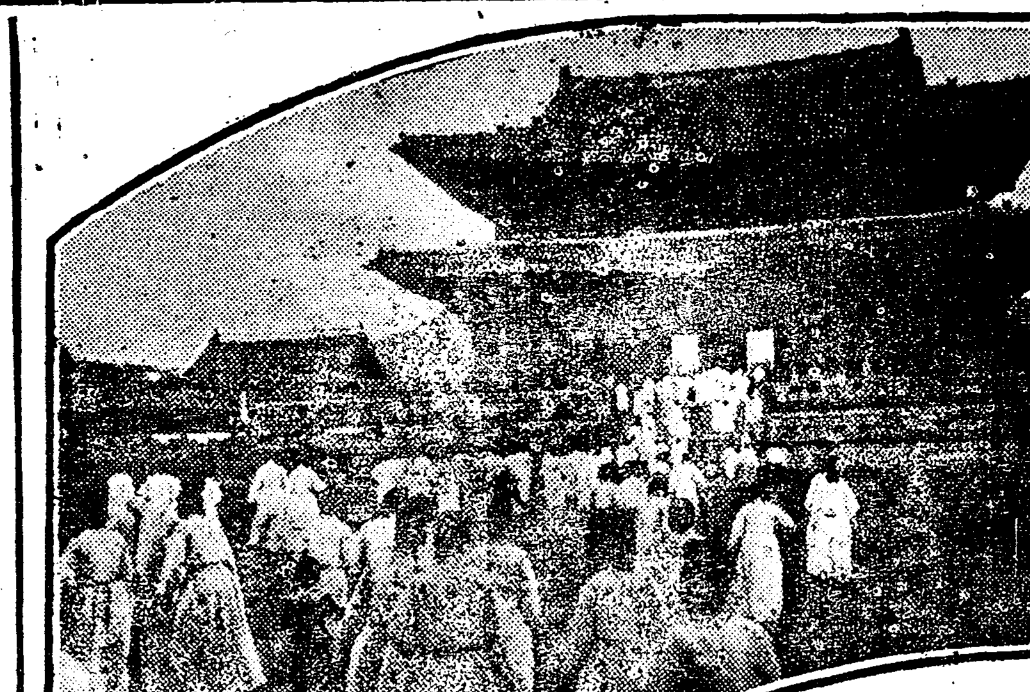
조선녀자청년회와 조선일보사에서주최한 데십삼회 부인견학단은예뎡과가티 삼십일일(토요) 오전십일시부터 경성역(京城驛)과경복궁(景福宮)을견학하고오후세시반에해산하엿다 이날은청명한가을일긔라 녀각권부터모혀드는 옷가음켜녀 젊은부인 머리가반남아서인녀흔은 부인할것업시경성역일데에는자못회긔한만한 녀자의 세계를일우엇고특별히중국녀자네사람이단일행중에참가하야한이채(異彩)를더웟섯다

삼백네명의일행 장사진을느리워

삼백네명의 견학단일행은 두베예난호아 장사진(長蛇陣)을 느리고 동식둘식역원(驛員)들의친절한 안내로 살풍대합실을비롯하야 질검을번한하는피차참고승강장(昇降場)사무실들의쉬이그는 손님들의 통로(通路)를 통코 차레차레구경하고 오른고 나려는것 돈주고드러가는 변소들을나왓다 이날은 마층편장설측일임으로이층팀은식당에는편잔처가 열려여간간히 나오는우숫소리만바람결에 흘러나려 울려이오친히올려가그굉장한설비를보지못함은 매우유감이엿다 경성역은대정십일년륙월일일에긔공(起工)하야금년구월삼십일에준공

뎐차세대를전용 광화문압까지

회항찬란한설비에넉넉음일로구경하든단원일행은밟길을돌리여의주통(義州通)뎐차종점으로나섯다 미리교섭하엿든세대의뎐차는우리를 영접하야실가티싸른게 광화문(光化門)압헤다다럿다 광화문!아 얼마나우리의귀에익숙한 일홈이냐 춘풍추우수백성상에 가진환락과 온갓풍파를 모조리격고 이제마즈막운명까지 당하게된 녯궁궐의정문(正門)이다 뎐차에서 나린우리일행중에는 『어도로좀이이헐린데요』하고 뭇는이도잇고나는마즈막작별로왓서오하며손수건으로 눈물을씻는이도잇섯다 삼천리강산에 주인이박귀인 오날날 부지럽는 이야기를떠힐필요가 잇스랴마는 머지아니하야 어둔은 우리와작별하고근정뎐(勤政殿)동편으로옷기여가서 경회루(慶會樓)와 마조안저 눈물겨운 구양사리할신세를 생각하니 누구나 겸개무량한 녜회포가 이러나지아



(사진은근정뎐으로드러가는부인견학단일행)

일행의가슴속에 여상한회포가새로웟다

우리는 먼저박물관(博物館)을 드러서 우리조상들이 고려(高麗)시대, 백제(百濟)시대, 신라(新羅)시대에 사용하든 어떠한가지 그릇파품은분석의 귀중한매물을보고 우리는다만작은어여야한』 불레일쟌이엿다 삼백명견학후리조선의 예술은 문명하다월랏깃는 이십세긔 오날사람으로는감히 주속도풀하기 평장히불갓뎌엿섯슴을 깁히 늦기엿다 여긔서나와 일행은 폐포파멸고 단한 뎐세에서 하로아츰조선면디를 장악에두엇든세에 호령대원군(大院君)의권세로중수한근정뎐을배관하게되엿다 서원(書院)을 철폐하야 당쟁(黨爭)을일삼든 유생(儒生)의 머리여럿을 내려서진시황(秦始皇)의 분서(焚書)를 지나간오날에 눈물어린명을 돌으면서중수한것이 죽십허(廢墟)가 될줄이야 어느누가 뜻이나하엿스랴 우리는 다만묵한테도로 사정뎐(思政殿)천추뎐(千秋殿)을 도라서 경회루물에 연악(宴樂)의소리를 듯든 경회루(慶會樓)로 나아갓다 회조원적 경회루 녯모슨 아득도푸른물빗이 그대로 흐르건만 어엽분궁녀(宮女)들의 발자욱기든 궁뎡(宮庭)은 거츠른풀속에 망망한바다판갓고 소리업시 무한한귀도로 흘러가며 태양은역시동에서떠서 서쪽으로진다 봄꼿은여전히 피고 가을달도여전히 밝것만 은당년의 영화는헌덕이업시 살어지고륙백오십만원의경비로금년에락성한총독부 마천각(摩天閣)이보일뿐이다 일행은풀밧헤헤여져참간다리를 쉬이고 광화문압헤서 산회하엿스니 뗴는오후세시반이엿다

童話 파옷남매 (二)

쓸쓸한 눈물의 밤이밝엇슴니다 이튼날 아츰해가 돗을때여위고 여윈 동생파옷은 얼골빗도창백(蒼白)해쳣지만 밤새도록 울던 눈물이 인됨에 커커잇섯슴니다 그날낫이엿슴니다 노-란벌(蜂)이한머리 쓸쓸히 마당에차저오더니 동생 파옷에가서나래를접고 삽붓이 나려안젓슴니다 『당신이 혹시붉은빗갓 산밋헤잇는 새파옷의 동생이아닌닛가? 내가부탁을 바더가지고 그동생을찻는중인데……』 동생파옷은 이것이 꿈에듯는소리나아닌가! 의심하엿슴니다 그립고 그립던 누님의소식을듯는 깃븜에 가슴이뛰면서 『네!내가 그동생이올시다우리누님이 안녕히계십닛가?』 고급급히 물엇슴니다 벌도역시 찻든옷을 맛난것이깃버서 『네 당신이그동생임닛가?아이그 서원하게도 만낫슴니다 인제야 마음이노임니다』하엿슴니다

『그래 우리누님이 안녕하게계서요』 벌가 그말슴을한번헤주세요 하고 동생파옷은 울엇슴니다그러나 벌의얼굴에는 벌도슬픈빗을띄우기시작햇슴니다 『당신의누님이 어제게아츰에 고만 죽엇다오 단하나인 동생이 어데가서 엇데케잇는지그것이 궁금해서 리별한후로 어데까지 울고만지냇다고 눈물을흘리며 이약이 하더니 인제는 더살자미도업고 살긔운도업스니 내가죽은후에라도 남매동생잇는곳을 차저서 내가죽엇다는 소식이나 전하여 달라하고는 그냥죽어 버렷다오 그래내가 그부탁을 밧고 마음이엇데케 슬흔지 어저께 아츰부터 지금까지 쉬지도안코 동생을차저 단엿다오……』

이기까지듯든 어린동생 파옷은 얼골이 새파래지며 자주빗이되며 이약이의끗도 듯을새가 업시으엉으엉 늣기여울엇슴니다 『아아 누님!누님!』하고 부르면서 동생파옷은 슬픈게슬호게 울엇슴니다 얼굴빗은자주 빗이되고 울고만지낸지 사흘째 되는날아츰에 귀여운 동생파옷도 죽어느러젓슴니다

× × ×

불상한파옷 남매의 이약이는 이것이 끗입니다 다만은 당신네마당에도 파옷이잇스면 그옷도 분명히 리별한동생이나 누의를 그리워 울고잇슬것 임니다 ―(끗)―

소부비관자살

산속에가서목을매여죽어

군산부장재동 옥구군텽(群山府?) 뒤산림속에서 지난이십칠일 오후칠시경에 목을매여죽은 녀자의시톄를 발견하엿다는데 그녀자는 군산부장재동일백십구번디 김성택(金成澤)의안해 김성녀(金姓女)(三八)로 판명되엿다하며 원인은 부부간의 불화한것도 심하지는 아니하얏는데 생활이 넉넉지못한것을한하든터임으로비관자살 인듯하다더라(군산)

효창원쌔락은 초순부터폐쇄

시내효창원(孝昌園)의『쌔락』은 지난구월말까지에 폐쇄하려 하엿던것이 그곳주민의 어려운형편으로 지금까지 밀려왓다함은 그동안수차 보도된바어니와 요사이 경성부텽에서는『쌔락』주민에게 금삼십원식의 보조금을 주어시외로광진(廣津)으로 옴기도록 알선하는동시에 다시영림창(營林廠)에의뢰하야주택건축에 필요한재목 이백호분(二百戶分)을수삼일안으로주문하여다가 이를 사백명주민에게 헐가로 대공할터이라는바 보통시정의 재목상보다 약반분을렴하게한다하며효창원『쌔락』은이달초순이면폐쇄되리라더라

今日學藝休載

小說 青衣夜叉 (청의야차)

金溟雲 譯 盧心汕 畫

三

그러나 이부인은 나중으로는 밀어둘수업는 무슨 부연일로나간것에 지나지안을것이다 그이상한에도나는 회일이자연히생각되엇다 그녀자와 약속을매젓다하는것은 그가 엇더한사람임을몰은하고 경솔하고어리석은 짓이엇다 그래고그결과는 아모리하여도 무슨중대한사변이 일어나고야 말것가탓다 그재집이나로 하여금 경시인줄로 알게하야나를교묘하게 속여넘긴 그사내놈들과 공모를하고잇는것은 다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사실인듯 십헛다 그사내놈은 지금생각한즉그비밀이잇던집에서부터나의 뒤를밟아온것이 분명하엿다 그리하야 내가사방으로 방황하다가 박향을부디칠때에 나의압헤 나타나서 내가말을부치도록 한것일것이다 엇잿든지모든일이 놈들이 그창녀한일을 숨기기위하야 모든계획이 강구된모양이엇다

『그놈이커도 하곤커녀내 들어오시지도안코 그래서 그런말생각은하엿지요 그래서 그런말을하낫가 서방님에서 자긔집에를오섯는데 그때마츰 숙모님도 오셧서 가련키보울잡수시게 되엇는데 커다리시다가 삼촌에서 병이위독하니 곳오라는 편보를 밧고 가려숙모님을 버리가섯다고그래요 그런때엇재서 머리를 상하셧세요?』

『그래』하고나는 대답하엿다 『몹어젓다네 그러나 관계치안에……내가 주의를안햇지』

그이야기는 지극히 교묘하엿다 그재집이 하여한재집이든지간에 그누나의삼촌을 아는모양이엇다 그리고그때마츰 나의삼촌은 마비로써 위독한상태에잇섯다 그런아니라 삼촌도또한내가오려니하고잇섯고 나도또한병이 더하면 가려하고잇섯다, 하고보면 나의가뎡에서 생기는일을이상한행동을하는그무리가자세하게알고잇는이것분명하엿다

『그러한 모순되는말을신유하다니 자네도 퍽미련하이평소에 민첩하든것과는딴판일세그려』

『참못되엇슴니다 그려치만숙부님께서병이더하시면가시라고하는줄을알고잇섯스닛가그러치오정말로아모도안보내서섯서요』

『아니정말로 안보냇서여긔에는 아마무슨흉한일이 숨겨잇나보이 방심하지말고 주의하여주소』

社告

今般本支局總務兼記者朴勝億兩氏는事情에依하야解任하얏사오니愛讀諸位는以此照亮하옵소셔 朝鮮日報木浦支局白

今般本支局에서左와如히局員을任用하얏사오니愛讀諸位는以此照亮하옵소셔 記者 李孝承 朝鮮日報延安支局白

今般本支局記者高赤銘君은事情에依하야辭任하얏고本支局에서는特別히家庭에게신讀者의便宜를圖키爲하야左와如히女記者를任用하오니愛讀諸位는以此照亮하옵소셔 記者 吳蓮姬 朝鮮日報平康支局白

今般本支局位置를金堤面玉山里三五二番地天道教堂으로移轉하얏사오니愛讀諸位는以此照亮하옵소셔 朝鮮日報金堤支局白

今般本支局에서左와如히局員을任用하야論山에駐在케하얏사오니愛讀諸位는以此照亮하옵소셔 朝鮮日報江景支局白

今般本支局記者李鍾弊君은事情에依하야解任하얏사오니愛讀諸位는以此照亮하옵소셔 朝鮮日報靈武支局白

◇天氣豫報 晴一時曇
◇溫度 一日正午 六二、二 比較 卅一日最高 三八、九
◇日出前六時三九八 晝間一〇時五三
◇日入後五時三五 夜間一三時二七

시내종로경찰서 사법계에서는 얼마전부터 엇던 디방경찰서와 … 황해도 자녕경찰서(…)에 압송하엿다 … 다시 권농동(勸農洞) 방면을탐하야 형사대가 출동하엿는데이 … 의눈을 긔어저녕 디방에출장하 … 오사단관(五十六號)에 … 조민용(趙敏鏞)에게 계를하여주자 그자는 아편을가 … 엿스나 그러한사람은 이를고소 … 한다든가며돈게되면 … 가튼 활동이계시되엇것이며 … 일조는 금년이쥐움이 아니라여

◆◆◆祝朝鮮日報續刊◆◆◆

咸興郡州東里 金明熙

咸鏡線西湖津驛前 取扱親切 酒造業 海陸物産 委託販賣 兼運送業 東昌釀酒所 東昌商會 主任 黃基鐘

咸興邑東西里 咸山酒造合名會社

咸興大和町 商工株式會社

咸興西陽里 辯護士 韓昌達

咸興大和町 北鮮商業銀行 李明雨

咸興住吉町 朝鮮料理 迎春館

咸興大和町 文具商 洋品商 一二元商店 電話三二三番 振替京城一三五五〇

咸興新昌里 辯護士 申錫定

咸興大和町 洋品商 一興商店 電話三七四番

退潮驛前 日進理髮館 主 安敬淑

咸興大和町 韓一商店 韓一運送部 電話四〇二番

咸鏡線呂湖驛前 大成運送店 主 李性普 主務 宋萬教

咸興大和町 大成屋洋品店 大成屋洋靴部 電話三一三番

咸興郡西退潮面峴山里 韓周燮

咸興上里 三省醫院 劉七石

咸興 李龜河

咸興西陽里 咸惠醫院 咸泰鴻 電話三六二番

咸興大和町 合資會社 新上精米所 咸興出張所 電話三七〇番

咸興中里 高衡璣

咸興中荷里 張錫淵

咸興大和町 太乙醫院 醫學士 金遠熙 電話三〇二番

退潮驛前 丸京運送部 主任 鄭學鏞

咸興大和町 東亞書林

咸興城町 順昌商會 元興運送取扱 主 金順夏 電話二七六番

咸鏡線呂湖驛前 貿易商 李客均

咸興新昌里 進成印刷所 主 韓象輝

咸興大和町 興農園

咸興大和町 李憲郁鐵工所

文川邑內 金衡泰

文川郡都草面 面長 趙三教

文川郡明孝面石田里 米穀及雜貨商 鄭然明 鄭然昭 鄭均寔

文川郡明孝面石田里 鄭均衡

文川邑內 咸平醫院 昇秉昇

文川邑內 文川無窮團

文川郡龜山面唐北里 金啓煥

文川郡明孝面石田里 實業家 鄭鶴和

文川郡龜山面貫竹里 黃冀駿

文川郡都草面 私立東明學校 職員一同

文川邑內 趙成楠

文川邑內 全□□

文川邑內 金□□

文川郡都草面業位里 釀酒所主任 朴承日

文川郡都草面龍井里 建築木工業 孫時條

文川邑內 料理 文川館 국수, 술, 안주, 계주

文川邑內 咸興地方法院所屬 司法代書人 崔鍾泰

文川邑內 司法代書人 安重鉉

文川邑內 雜貨商 崔昌根

文川邑內 鐵物商店 主任 金春浩

文川邑內 東興洋服店 主任 李東基

咸鏡線文坪驛前 東洋釀酒所特約店 金鳳珍

文川郡明孝面新栗里 有志 金澄鍍

文川郡明孝面明友里 有志 金俊基

文川郡都草面木亭里 有志 李韺世

文川邑內 司法代書人 朴喜榮

咸鏡線文坪驛前 面長 金英淵

咸鏡線文坪驛前 合同釀酒所特約店 金明歡

咸鏡線文坪驛前 有志 朴龍祚

咸鏡線文坪驛前 海星講習所

文川邑內 元永

清津府新岩洞 □關清津支社 李富淡

清津府新岩洞 中央旅館 主 尹敎興

元山府北村洞 海陸物産委託業 金羽相 電話四六九番

元山府廣石洞 南陽商店 電話四二三番

元山府南村洞 半島醫院 電話五二四番

兼二浦本町 請負運搬 仲介用達 貿易委託 各種雜貨 大東共濟社 電話三三番

兼二浦大正町 金泰希

兼二浦本町(電話六三番) 朝鮮日報兼二浦支局

兼二浦大正町 天道醫院 朴來完

黃州郡松林面長 方益燦

兼二浦明治町 精米業 吳鎭憲

兼二浦明治町 姜範植

兼二浦本町(電話六三番) 雜貨商 張道俊

兼二浦本町 東亞日報兼二浦分局

兼二浦大正町 布木商 朴楨綸

兼二浦本町 ゴム靴及雜貨商 李亨植

兼二浦大正町 區長 金斗獻

兼二浦大正町 釀酒業 方永勝

兼二浦本町 回春醫院 李東鐸

衡平社榮州分社 分社長 趙三成 總務 片岩回 財務 趙君實 評議 朴春伊 評議 趙石□ 評議 辛鳳先

榮州邑內 徐隆錫

榮州邑內 金世經

榮州邑內 司法代書人 李鍾大

榮州邑內 權泰赫 權泰禧

榮州邑內 司法代書人 金博榮 從業人 金洛基 行政代書從業人 宋相允

榮州邑內 各種印章及ゴム印彫刻業 全炳寅

榮州郡安定面安心洞 李鍾灝

榮州邑內 米穀貿易 春一精米所 主 朴齊甲

榮州邑內 雜貨商 金昌商店 權泰淵

榮州邑內 司法代書人 朴瑞陽

榮州郡榮州面古峴里 雜貨店主 朴龍緒

榮州郡豐基面日新洞 高台和

榮州郡榮州面上望里 李潤雨

榮州郡伊山面長 姜國元

榮州邑內 丁厚堂

榮州邑內 米穀商 廣信商店 主任 劉弘烈

榮州郡榮州面上望里 雜貨商店 金德七

榮州邑內 米穀商 正玉商店 孫復煥

榮州郡浮石面南岩里 學務委員 金會□

奉化郡乃城面赤德里 金守鉉

榮州郡豐基城內 豐基靑年會

榮州郡豐基城內 李淑子

榮州郡豐基城內 和洋家具製造及修繕業 金義鋼

榮州郡豐基城內 各色料理提供親切主義 飲食店 李龍善

榮州邑內 鹽穀木材麵商 大榮商店 宋在龍 宋星煥 宋補寬

羅州郡邑內 司法代書人 盧治鉉

羅州郡邑內 昇奉烈

羅州郡邑內 鄭斗玉

羅州邑內 吳翔學

羅州邑內 李廷順

羅州邑內 韓容鉉

羅州邑內 朴珩來

羅州邑內 李基性

羅州邑內 南相緖

羅新面事務所職員一同

羅州面事務所職員一同

東拓이 農民을 威脅
農民側은 對策을 講究

全南羅州郡榮山、旺谷、細枝三面 面民들이 農民會를 組織하고 東拓에 被奪된 土地回收를 運動한 結果 面民과 東拓사이에 關係가 漸漸險惡하야 東拓에서는 近近面民을 威脅하는 廣告文을 發布하얏다는데 同農民會에서 方今 其對策을 講究한다더라(羅州)

豐山婦女夜學
新興靑年會의 開催

第一急務가 婦女敎育이라하야 安東郡豐山新興靑年會에서는 家庭에 囚閉된 婦女를 爲하야 當地公普講堂에 夜學을 開催하고 客月부터 敎授한다는데 課目은 다 女性開進에 適當한 것을 擇하얏고 敎員은 同會委員諸氏라더라(豐山)

翼成學院落成

平南价川郡北面龍潭里田兩里는 山間僻地로 敎育機關이 無하더바 去三月頃부터 兩里가 協力으로 物財를 鳩聚하야 臨時로 李贊彦氏家를 借하야 開講하던 翼成學院이 今番 兩里人의 熱誠으로 新校舍까지 竣工되야 十一月一日 落成式을 擧行한바 將次當地의 有數한 敎育機關이 되리라더라(价川)

間島龍井에 通俗講座
去月二十九日에

間島龍井에 잇는 通俗講座에서는 去月二十九日午後七時부터 間島公會堂에서 特別大講演會를 開催하고 左記와 가튼 여러 演士의 講演이 잇섯다더라

△敎育과 人間 鄭重燮
△紳商輩의 不景氣 李周和
△輸移出品의 近況 李容碩
△間島事情 姜 錫
△人生의 最大疑問 李麟求
△社會制度 李淑俊 (龍井)

聯合農産品評
僻地를 擇하야 杞溪面에 開催

十一月三日부터 迎日郡杞溪面縣內洞에서 杞溪、竹南、竹北、神光、西面의 聯合農産品評會를 開催한다는데 從來 共進會品評會等을 都會地에 開함이 常例이나 今回는 特히 僻陬地의 杞溪面을 擇하야 開催함으로 好評이 非常하며 同杞溪는 同郡十八面中人口가 最多하야 鬱陵全島와 匹敵할만한 大面으로 慶州安康間新作路로 因하야 自動車의 定期行도 잇는데 開催中 四日間은 白日場、衛生展覽會、活動寫眞、打毬花火其他各種의 餘興等을 行할 計劃이니 오는 安康驛으로부터 特히 自動車를 徵發하야 觀衆의 便宜를 圖한다더라(浦項)

少年團創立
寶城筏橋에

全南寶城郡筏橋面筏橋里少年들은 十月一日 筏橋地方靑年會館에서 筏橋少年團을 組織하고 左의 規約과 選任이 잇섯다더라

◇規約
一、우리는 우리人類의 嚴肅을 當치말며 우리는 個性을 尊重히하며 完全한 人格을 培養하자는 것
二、우리는 조흔것을 본바드며 서로 사랑하며 뭇사람을 爲하야 일하는 무리가 되자는 것

◇任員
團長 吳在云 智育部長 李貴來 運動部長 裵庸甫 實業部長 裵相珍 社交部長 金永玉 會計 李錫來 書記 徐廷三(筏橋)

少年軍活寫隊
十一月一日부터 三日間

朝鮮少年軍總本部의 巡廻活動寫眞隊는 豫定한 順路를 거처지난 二十五日 釜山에 當到하엿스며 十一月一日부터 三日間 釜山府內三處에서 二十錢、十錢의 料金으로 公開할터이며 後援은 少年軍釜山本部와 府內各團體等이라더라(釜山)

井邑農校 落成式盛況

十月二十四日부터 五日까지 全北井邑邑內農業學校에서는 同校新築落成式을 盛大히 擧行하얏는데 二十四日에는 同郡靑年等의 自轉車競走大會 同校全般生徒의 假裝行列提燈行列이 잇섯고 翌二十五日에는 運動競技素人劇等이 잇섯다더라(井邑)

獎産標語募集

旣報=十一月二十日부터 開催되는 晉州共進會에서는 産業獎勵에 關한 標語를 十一月十五日外지 募集한다는데 規定은 左記와 갓다더라 ▲標語는 農業、畜産、蠶絲、林産、工産、棉作、水産等 獎勵上 가장 切實簡明且平易한것 ▲用語는 日語又는 朝鮮語、用紙는 半紙에 住所姓名을 明記密封 ▲宛名은 晉州郡廳內共進會事務所懸賞係라함 ▲發表는 會期中各會場에 揭示하며 且新聞紙上에 揭載함 ▲賞金 一等三十圓一點 二等十圓二點 三等五圓五點(晉州)

市場設施問題로 雙巖面民大會
陰十月一日부터 開場키로

全南順天郡雙巖面은 僻鄕인것으로 近하야 四十里內에 市場이 업는바 運轉과 交通의 不便을 遺憾으로 생각하든바 有志諸氏의 發起로 去月二十六日에 面民大會를 開催하고 趙光鉉氏司會로 長時間討議한 結果 面內에 市場을 設置하기로 決議하고 左와 가튼 決議가 잇슨後 閉會하얏다더라

一、預算額은 一千圓으로 할일
一、金錢募集方法은 面內有志의 義捐金으로 할일
一、陰曆十月一日로 市場을 開始할일
一、募集委員 趙允植 朴漢泰 姜永烈 朴炳昊 姜永泰 徐正佑(順天)

江西岐陽里에 興業會社發起

平南線岐陽驛은 江西의 生産物輸入出上 樞要地인대 今般 同郡有志

海州面擴張
泳東面의 一部를 不遠間編入할듯

現海州郡泳東面淸風里는 高等普通學校가 新築된 以後로 數十戶의 新築家屋이 늘어 자못 新市街를 이루운듯 매우 繁昌할뿐더러 近者 市區改定當時에도 戶口가 增加되엿스며 電氣도 架設하야 海州面에 잇든 市街보다 오히려 隆盛빗치 잇서 數年前부터 淸風里의 一部를 海州面으로 編入할려하얏스나 不得已 오늘까지 彌態를 保存하야 오든바 一個月前에 實際調査를 마치고 種種의 途中의 市內外지를 限界로 海州面으로부터 道當局에 申請中이라는바 不遠間에 무슨 消息이 잇슬듯하다더라(海州)

各地學藝展覽

金泉少女畫展 金泉少年會主催 南鮮少年少女懸賞洋畫展覽會는 左記規定으로 兩日間開催한다고

展覽時日 十一月二十二、三兩日間 會場 金泉金陵靑年會館 出品種別 自由畫其他 出品點數 一人一點以上五點以內 出品者資格 年齡自四才至十九才 出品期限 十一月十八日 出品場所 金泉南山町金泉少年會 懸賞等級 一、二、三、四、五等 賞品種別未定(金泉)

龍潭主校展覽 全北錦山郡龍潭邑內耶蘇敎幼年主日學校에서는 十月三十一日 該校內에서 一般少年少女作品展覽會를 開催한바 出品은 作文、習字、圖畫、裁縫、手工等五種이라고(錦山)

羅州學術展覽 全南羅州公立普通學校內에서는 羅州敎育會主催로 十一月一日부터 三日間 學術品展覽會를 開催할터인데 各道及日本各地의 小學生作品을 募集한다더라(羅州)

方峴公普展覽 平北龜城方峴公立普通學校에서는 十月二十六日에 展覽會를 開催한바 觀覽者가 千餘名이엇다고(龜城)

抱川支局에서는 來三日陰九月十七日에 開催되는 抱川公立普通學校秋期運動會를 機會로 變裝記者 찾기를 할터인데 時間은 當日午前十一時부터 十分間에 同普通學校運動場에서 찾는이에게는 本報一個月分을 無料로 進呈할터인데 變裝記者는 文商圭君과 曹武煥君이라더라(抱川)

公文이 不穩타고 發送禁止

旣報=光州에 在한 全羅南道農聯盟會에서 湖南各地主에게 發送하랴던 小作條件決議事項實行에 關한 公文은 當地警察署高等係主任이 同會幹部를 呼出하야 小作條件만 發送하는 것은 모르나 公文의 內容이 階級鬪爭的이요 地主에게 施行與否를 回答하라는 것은 回答을 强請하는 것이니 警察署에서는 不穩當하다고 認하야 發送을 禁止한다 하는바 同會에서는 不得已 發送을 停止하얏다더라(光州)

各地靑年運動의 陣容

郡聯盟單位의 慶北聯盟
來五日金泉에서

慶北靑年運動을 組織的으로 統一하기 爲하야 安東靑年聯盟의 發議로 道聯盟을 組織하기 爲하야 發起의 順次를 各郡聯盟에 照會하엿다 함은 旣報와 如하거니와 各郡聯盟으로부터 贊同의 通知가 遝至하야 準備에 對한 節次는 安東靑年聯盟에 一任한다하얏슴으로 該聯盟에서는 左와 如한 參加規定을 發表하엿다하며 時日이 臨迫함으로 加盟團體와 代表諸氏는 바로 金泉으로 持參하여도 無妨하다더라

一、郡聯盟單位로(一郡에 一個靑年會만 잇는곳은 그靑年會로써 聯盟과 同一한 資格을 與함)
一、郡內에 一個以上의 靑年團體가 잇서 아직 聯盟이 組織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그 郡代表들이 協議하고 將來組織될 郡聯盟의 代表로 選出參加케 할것(參加形式은 〇〇郡靑年聯盟期成會로 代表는 同期成會代表로)

時日 一九二五年十一月五日下午二時부터
場所 金陵靑年會館(金泉)
參加申込所 安東靑年聯盟으로(安東)

咸興靑年會 任員補選

去二十六日 咸興靑年會幹部一同은 突然히 總辭職을 斷行하엿슴으로 任員補選을 爲하야 去二十八日 同會館에 臨時總會를 開催하고 執行委員及檢事委員을 如左히 改選하엿다더라(咸興)

▲執行委員 全仲奎 都寬浩 金鏞兆 李秀濟 朴桐爵 朴起明 金成周 ▲常務委員 全仲奎 ▲檢事委員 金英淑 羅炳斗 蔡奎恒

蠶種申請期 全北錦山

錦山郡錦山面에서는 來年度春夏秋飼育蠶種申請期日을 左와 如히 發表하엿다는데 各里區長에게 委托할 이조켓다더라(錦山)

自大正十四年十月二十五日 至大正十四年十一月十五日

密靑委員改選

密陽靑年會第十一回定期總會는 去二十六日 同會館에 開催되엿는바 前任員은 總辭職되고 新任委員은 左와 如하다더라(密陽)

委員 金鉼煥 崔赤根 郭宗坤 韓一根 朴士守 車 敬 鄭浩 洪宰爽 金熙佐

◇盈德 盈德靑年會에서는 第十回定期總會를 去月二十五日下午一時에 同會館內에서 會長洪永杓氏司會로 開會되여 各部事業報告、任員補缺選擧、會員意見陳述、其他重要事項을 決議하엿는데 特히 本館內에 設立한 際德學院制度를 變更하야 實業部를 두기로 張還히 討論한後 同六時에 閉會하엿다고(盈德)

◇泗川 慶南泗川靑年會는 中堅人士의 日本留學과 實業化로 因하야 久히 有耶無耶狀態에 在하든바 此를 慨嘆하는 同地有志李允祚氏外諸氏의 熱心으로 會員整理와 內容改善에 盡力한 結果 三十以內의 血氣旺盛한 靑年會員五十人에 達할뿐아니라 舊靑年會員도 此에 共鳴하야 同會舊債務一切는 前幹部及會員이 責任負擔하고 文書器具其他一切를 新興靑年會에 引渡하는 等 成績이 良好함으로 同會에서는 三十一日午後一時 臨時復興總會를 開한다더라(泗川)

◇安岳 安岳郡安岳面南井里에서는 金元叙鄭寅彬兩氏의 發起로 啓城靑年會를 組織하고 第一回總會를 金元叙氏宅에서 去月二十四日下午七時半에 會長金元叙氏司會下에 開會를 한바 會員이 二十餘人이 엇고 夜學을 設置할것을 決議하얏다고(安岳)

◇茅島 全南莞島郡靑山面茅島에서는 去月二十六日午後八時에 茅島靑年會第十八回定期總會를 同洞里發展運動內에서 開催하엿는데 臨時議長張漢俊君의 司

敎養部委員 李平權 鄭千鎬

會下에 各項決議와 任員選擧를 마치고 同十二時에 無事히 閉會하엿다더라

◇決議事項
一、洞里勞働夜學을 靑年會에서 無料로 敎授할일
一、新聞講座會를 組織할일

◇任員 執行委員 文承默 鄭現才 崔昌奎 崔柄錦 徐在萬
◇常務委員 庶務部 徐在萬 會計部 崔昌奎 調査部 文承默 宣傳部 崔柄錦

全北聯盟
代表二十餘人이 懇談會 열레創立

全北各地靑年代表二十餘人은 十月三十日午前十時 完山靑鶴樓에 모이어 懇談會가 잇섯는데 林赫根君의 動議로 全北靑年聯盟會發起會를 組織케 되야 臨時席長金顯振君의 司會로 議事를 進行하매 爲先 準備委員五人을 選定하야 創立準備를 委任하고 暑二十分間休會한後 繼續하야 創立總會를 開하고 臨時議長으로 金顯振君이 再選하야 金君의 司會下에 議事進行이 開始되야 準備委員이 作成한 宣言綱領及規約에 아모 異議업시 前案대로 滿場一致로 通過한後 左記의 任員을 選定한後 同日午後四時에 飮會하엿다고(全州)

庶務部委員 林赫根 裵鏞 宋柱祥
調査部委員 李寧吉 金香奎

論山靑年會
記者團에 抗議

忠南論山靑年會에서는 去月二十七日 旭町禮拜堂內에서 臨時總會를 開하고 今般運動會及素人演劇에 對한 收入計算報告가 잇슨後 會長許鍊氏辭任으로 被選되고 副會長에 曺屋煥氏가 被選되엿스며 論山에서는 梁載根氏가 被選되엿스며 論山衡平對料亭紛糾事件에 某料理店主人間에 內隱이 잇다는 等 其他侮辱的醜聞을 弄하며 中傷的亂筆을 揮하야 無根한 報道가 不止一二次로 一般社會에 致命傷을 준 某報記事에 對한 事實을 調査하는 同時 西湖記者團에 徹底對抗하기로 評議員會에 一任하고 同夜午前零時半에 閉會하엿다더라(江景)

◇平壤 平壤基督敎靑年會에서는 去二十九日下午七時半 同會館內에서 同會定期總會를 開하고 一年間經費狀況報告와 任員改選等이 잇슨後 同十一時에 閉會하엿다는데 新任員은 다음과 갓다더라

會長 鄭斗鉉 副會長 尹柱逸 總務 薛命和 會計 李秉均 書記 金光洙 文藝部理事 金炳淵 講話部理事 禹濟順 體育部理事 金鼎相 娛樂部理事 李伸植 引濟部理事 李濟鶴(平壤)

◇英陽 慶北英陽靑年會에서는 去月二十四日午後三時부터 同會館에서 第十一回定期總會를 開催하고 左記議事를 進行하는 中 石保公立普通學校訓導醜行事件에 對하야 長時間에 걸렷스나 事件이 너무 複雜함으로 結論치 못하고 前會에 保留된 會則處理件과 共히 新任幹部에게 委任하고 同六時半頃에 閉會하엿다더라

一、會錄修正 幹部에게 委任
一、各部報告
一、任員選擧 金洪燮 金碩鎬 趙鼎植 吳鈙秉 金基濬 趙薰錫 吳鈙八 委員 南延卓 南膺元
一、會館新築寄附金許可手續 幹部에게 委任
一、石保公普校訓導醜行事件은
一、保留된 會則處理의 件은 幹部에게 委任(英陽)

◇潭陽 全南潭陽勞働靑年會에서는 同會第二回定期總會를 去月二十七日下午八時半부터 鄭環仁氏司會로 潭陽靑年會館內에서 開催하고 諸般事項을 如左히 討議한後 同十一時頃에 散會하엿다고(潭陽)

◇討議事項
一、事業實行案에 關한 件 가、勞働夜學 나、講座及講演會 다、運動會及遠足會
◇社會問題
一、勞働運動組織體分化에 關한 件
一、少年運動에 關한 件
一、女性運動에 關한 件
一、風紀問題에 關한 件
一、衡平運動에 關한 件
一、委員補選에 關한 件
一、特別問題
一、都草面小作爭議에 關한 件

華陽講習有望 加平郡

郡內面上色里華陽講習所는 財政이 逐艱하던바 近日은 有志의 同情이 逐至하야 벌서 巨數이 收集되며 衆力을 顯하야 完成을 期한다더라

敎育에 참熱心

敎育界에 貢獻이 만흔 朴洵龍氏는 現今 金化公普在職中인데 十月一日부터 複習所를 設하고 四十餘名 生徒를 聚合하야 夜課에 熱心한다하며 十一月一日부터도 地方靑年을 開導키 爲하야 勞働夜學을 開한다더라(金化)

水下公普落成式

旣報=咸南端川郡水下面公普校落成式은 延期되야 十月二十五日에 擧行하고 餘興으로 同校庭에서 運動會를 開催하얏다더라(端川)

太和學院後援 盈德郡

寧海太和學院은 維持가 困難하던바 同地振興會員들이 每人三十錢式 出捐하야 後援하기로 하고 발서 收集된 金額도 多하다더라(盈德)

東下公普開校式

本年十月一日附로 認可된 龍川郡楊市東下公立普通學校事情開校式은 十一月三日에 擧行할터인데 當日運動會까지 開催한다더라(楊市)

【大渚夜學】 金海郡大渚面出斗里勞働夜學은 今春에 創立된바 現今男女學生이 八十餘名에 達하야 매우 盛況이라는데 經費는 夜學生의 織造한 草鞋를 모아 維持하는바 現在殘金貯蓄이 四十餘圓이나 되며 敎師는 金永周氏가 無料敎授한다는데 一般은 師生의 熱心을 讚賀한다더라(大渚)

【內洞夜學】 永興郡德興面內洞里振興會에서는 夜學會를 十月一日에 開催하고 會員 金迺鍊 金生鈺 李培峻 金昌渠 金洪鍊 金潤堂 金倚堂 金昌鎬 金龍川 諸氏가 普通科及高等科를 分擔하야 無料로 熱誠敎授한 結果 男女學生이 百餘名에 達하얏다고(永興)

◇寸鐵◇

【海州】 海州電氣會社는 滯症이 생겻는지 하로밤에도 몃번식 불이 죽엇다 살엇다 한다 手提電燈 使用法을 利用하는지

◇

【豐州】 公普校生徒가 홁을 파다가 土窟의 崩壞로 四五名의 重輕傷을 當하얏는데 다리고 갓든 宇田先生은 홁속에서 다 죽어가는 生徒를 모내면서 『다이조부』소리만 하더라고 홁이 『다이조부』라는 말인지

?

◇

【永興】 鎭坪面興城里金某란 靑年은 自己父親이 金錢을 주지 안는다고 父親의 상투를 一擧에 째엿다든가 상투업는 아비는 돈을 잘주는줄 알엇든 貌樣

地方人事

▲彭三辰氏(本報馬山支局記者)는 日本에 留學次로 十月三十日馬山出發

◇取消申請 大正十四年十月二十四日發行貴紙第一八一三號一版二面記載 『日人郵便局長이 村童을 誤射重傷』이란 題한 記事는 事實을 捏造한 記事로 甚히 迷惑되는바 有하오니 御取消하심을 望함

大正十四年十月二十八日 碧潼郵便局長 須藤松次郞
朝鮮日報社 貴中

林産品評大會

全北林産品評大會는 全北物産陳列場內에서 十一月一日로부터 同三日外지 三日間擧行(全州)

運動界

沙里院競球
庭球勝은 鳳山軍 蹴球勝은 黃州軍

旣報=京義線沙里院本報支局主催와 開闢黃州支社後援의 庭球蹴球戰은 十月三十一日 私立進明學校로-는에 開催된바 觀衆은 人山人海를 일우엇고 勝은 庭球에 鳳山軍 蹴球엔 黃州軍이라더라(沙里院)

◇善山公普運動=善山公立普通學校에서는 十月二十八日 秋季大運動을 同郡靑年會와 聯合開催한바 男女學生의 六十餘種의 競技는 觀衆의 喝采를 博하얏다고(善山)

◇石保公普旅遊=英陽郡石保公立普通學校五六學年生徒五十名은 十月二十六日 周王山의 鶴巢臺、內瀾瀑、講學樓、望亭等 許多名勝을 探訪하고 當地普校와 蹴球外지 하얏다고(靑松)

◇江界幼園遠足=平北江界養成幼稚園에서는 十月二十八日 園監世浩氏及姊妹三人이 園兒八十餘名을 引率하고 東門外에 遠足하야 아희들의 가지가지 遊戲가 만햇다고(江界)

◇順天公普運動 全南順天雙岩公立普通學校에서는 十一月五日에 昨年本校落成을 記念키 爲하야 大運動을 開催한다고(順天)

◇南平公普運動 全南羅州南平公立普通學校에서는 十月三十日 秋期大運動會를 開催한바 大盛況이엇다고(羅州)

◇榮州公普運動 榮州公立普通學校에서는 十月十五日 秋季大運動會를 開催한바 豐基公普、順興公普、流石公普、榮州講習所、榮州明義塾等 諸校生이 參集하야 當日大盛況을 演하얏고(榮州)

◇順興運動競技 榮州郡順興公立普通學校에서는 十月二十日 同校校庭에서 秋季運動會를 開催하엿고 同二十一日에는 庭球蹴球의 競技가 잇섯고 同二十二日에는 順興迎鳳樓에서 順興靑年會의 主催로 白日場을 開한바 近來初有의 大盛況을 呈하엿다고(榮州)

◇豐基三大運動 榮州郡豐基公立普通學校에서는 去十月二十四日 秋季運動會를 開催하엿고 翌二十五日에는 豐基市民主催로 自轉車競技蹴球試合等을 同公普校庭에서 行하고 同二十六日에는 同地靑年會運動場에서 市民主催의 脚戲를 演하야 三日間 豐基近方은 運動의 世界가 되엿섯다고(榮州)

◇四學院聯合運動 京畿道水原郡城湖面細柳里 大成學院主催로 三樂義塾、華興學院、大成學院의 四學院聯合秋季運動會는 去三十一日 細柳里廣場에서 盛大히 開催하엿는데 四校選手리려 一의 優勝은 烏山大成學院이라고(烏山)

◇義城公普運動 慶北義城公立普通學校에서는 十月二十五日 秋季大運動會를 開催하엿는데 七十種의 運動은 참壯觀이엇고 觀衆은 數千에 達하엿다고(義城)

主催 平壤基督靑年會
第五回 全朝鮮蹴球大會

一、參加團體 靑年、中學、小學團
一、參加金 靑年、中學은 五圓 小學團은 三圓
一、申請期限 十一月十日外지
一、申請場所 平壤基督敎靑年會事務所
一、競技期日 十一月十二日 十三日
一、競技場所 平壤崇實專門學校運動場
一、抽籤期日 十一月十一日 下午三時
一、抽籤場所 (同競技場)

後援 時代 東亞 朝鮮 三支局

博川婦女夜學

博川邑內耶蘇敎會에서는 一般婦女를 覺醒키 爲하야 今年도 昨年과 가티 十一月十六日부터 同敎會堂內에 女子夜學을 開催한다더라(博川)

飮料水업는 鎭興市
四十里外에서 運搬解渴

咸南永興郡鎭興市는 一百四五十戶나 되는 市로 飮料水가 업서서 住民들은 不得已 江水를 飮料水로 使用하야 오든바 여러가지 病菌이 잇는 와닭으로 여러가지 病者가 續出함을 免치 못하고 一般住民은 四五十里되는 松田灣에서 飮料水를 運搬하야 겨우 解渴을 하는 中이라더라

三成學校漸昌
熱誠과 同情으로 音樂會도 大盛況

信川郡山川面鏈橋里私立三成學校는 四年前에 創立되야 弁始榮外諸氏의 誠力으로 現今은 生徒가 百餘人 校基가 千餘坪에 達하얏는데 去二十四日夜에는 特別히 安岳基督敎靑年會洋樂隊를 請來하야 音樂演奏會를 開催한바 聽衆이 七百餘人이요 收入된 金額이 二百餘圓에 達하엿다더라(安岳)

荊谷勞働夜學

慶北善山郡龜尾面荊谷洞은 二百餘戶 大村에서 一個의 敎育機關이 無하더바 今般에 洞內有志 金秉國、朴琫喆、李愚仁等諸氏의 斡旋으로 學齡外年齡等關係로 就學이 困難한 勞働靑年兒童을 募集하야 勞働夜學會를 設立하고 去九月三十日부터 開學하엿는바 이미 入學한 學生이 三十餘名에 達하얏스며 敎師는 金敎翊氏가 義務敎授한다더라(龜尾)

七萬餘坪寄付 鳳山郡

萬泉面楡亭里私立朝陽普通學校長李鍾隱氏는 學校基本財産을 積立코자 寄附를 募集하던바 左記諸氏는 七萬餘坪의 土地를 寄附하얏다더라

李胤永 畓二九三七〇坪 田三二九三一坪 李忠健 畓八〇九五坪 田五三七五坪 李千健 畓四九八〇坪 田四七五坪 (沙里院)

本報讀者에게
新曆進呈豫定

本報鹽州支局에서는 本報續刊을 紀念키 爲하야 十一月一日以後繼續하야 購讀하시는 讀者에게 限하야 紀念品으로 丙寅年日表(예는 달력) 一部式을 進呈할터인데 進呈期日은 來十二月中旬頃이더라

陶山學父兄會發起

安東郡陶山에서는 아즉외지 學校後援機關이 업든바 去二十四日 當地公普校秋季大運動會를 際하야 陶山學父兄會創起會를 同日下午三時 同校講堂에서 開하고 繼續하야 同創立總會를 開하고 여러가지 決議가 잇슨後 任員을 左와 如히 選定하엿다더라

會長 李尙鎬 副會長 李中進 總務 李昶鎬 書記 李中九 李振鎬 幹事 李東泰 外九人(禮安)

驪州郡廳上樑式

驪州郡廳은 頹落且狹少하야 舊韓國官衙地에 新築하기로 하고 道當局에서 入札에 付하얏던바 武藏三郞에게 一萬三千八百八十圓에 落札이 되야 去十六日부터 工事에 着手中이더니 去二十日에 上樑式을 擧行하고 武藤郡守以下 各官公署職員及一般有志者 三十餘名을 招待하야 自祝宴이 잇섯다더라

【藥樹夜學】 藥樹靑年團에서는 十月二十八日부터 藥樹公立普通學校內에서 夜學을 開始한바 甲乙兩班生徒가 七十餘名인데 講師는 靑年團長渠任泰、校訓導朴華玉、鄭奎三氏라더라(任實)

小事는 大事

『그까짓石鹼쯤이라고』無心히는 못합니다 其良不良이 皮膚의 健康에 밋치는 影響은 實로 多大한것이올시다 더구나 子女等의 軟柔한 皮膚에는 些少한 刺戟도 無한 純良無比의

品質本位

花王石鹼(와왕비누)을 必히 撰擇하십시

花王石鹼 ─光榮─
帝國陸海軍 慶應義塾大學醫學部
鐵道省 陸軍各衛戍病院
遞信省 各海軍病院
東京帝國大學醫學部 日本赤十字社病院
京都帝國大學醫學部 傳染病硏究所
九州帝國大學醫學部 南滿洲鐵道會社病院
東北帝國大學醫學部 各府縣立病院
全國各醫科大學 御用

製造元 東京 花王石鹼株式會社 長瀨商會
大阪市南久太郞町 長瀨商會大阪倉庫事務所